

2012 마약류 범죄백서

# 제 2 장

## 마약류별 일반현황



PROSECUTION SERVICE **2012**



## 제1절 아편, 헤로인

### 1. 세계 개요

- 2010년 현재 15~64세의 세계 아편류 남용자는 2,640만~3,600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 중 약 절반은 헤로인과 아편 남용자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헤로인 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럽지역에서는 감소 또는 안정화 추세임
- 세계 양귀비 경작면적은 2011년 현재 약 207,000ha로 이 가운데 약 63%를 아프가니스탄이, 라오스와 미얀마가 20% 이상을 차지함
- 세계 양귀비 생산량은 2010년 4,700톤에서 2011년 7,000톤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이 전년도 양귀비 전염병(disease in opium poppy plants)에서 회복되어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며, 이 중 3,400톤이 생아편으로 소비되거나 밀매되었음
- 2010년 헤로인 압수량은 81톤으로 전년대비 7% 가량 소폭 상승한 것으로 그쳐 상당히 안정 추세임

제1절 아편, 헤로인

[표 2-1] 세계 양귀비 경작 면적

(단위: 헥타르)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가별										
황금의	아프가니스탄	80,000	131,000	104,000	165,000	193,000	157,000	123,000	123,000	131,000
초승달지대	파 키 스 탄	2,500	1,500	2,438	1,545	1,701	1,909	1,779	1,721	362
황금의	라 오 스	12,000	6,600	1,800	2,500	1,500	1,600	1,900	3,000	4,100
삼각지대	미 안 마	62,200	44,200	32,800	21,500	27,700	28,500	31,700	38,100	43,600
콜 롬 비 아		4,026	3,950	1,950	1,023	715	394	356		
멕 시 코		4,800	3,500	3,300	5,000	6,900	15,000	19,500		
기 타 국 가 들		3,074	5,190	5,212	4,432	4,184	8,600	7,700	10,000	13,300
합 계		168,600	195,940	151,500	201,000	235,700	213,003	185,935	195,677	206,703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2

[표 2-2] 세계 양귀비 생산(추정)량

(단위: 톤)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가별										
황금의	아프가니스탄	3,600	4,200	4,100	6,100	8,200	7,700	6,900	3,600	5,800
초승달지대	파 키 스 탄	52	40	36	39	43	48	44	43	9
황금의	라 오 스	120	43	14	20	9	10	11	18	25
삼각지대	미 안 마	810	370	312	315	460	410	330	580	610
콜 롬 비 아		50	49	24	13	14	10	9		
멕 시 코		101	73	71	108	149	325	425		
기 타 국 가 들		50	75	63	16	15	139	134	185	237
합 계		4,783	4,850	4,620	6,610	8,890	8,641	7,853	4,860	6,995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2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 2. 소비(남용) 동향

- 아편은 북미, 오세아니아, 동유럽과 남동유럽 지역에서 세계 평균치보다 높은 남용률을 보이는데 북미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처방 아편류 남용이 헤로인 남용보다 많고, 동유럽과 남동유럽에서는 헤로인이 주요 관심사임
- 2011년 헤로인은 467톤이 제조되었으며 북미 지역에서 합성 아편류의 수요 증가로 인해 헤로인 수요는 줄어들음
- 이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영국은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s)과 바르비투르(Barbiturates)가 섞인 헤로인 남용이 늘었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헤로인 소비가 합성 아편류나 펜타닐(Fentanyl)로 이동함
- 서유럽 지역에서 아편과 헤로인 소비는 지난 10년간 안정화 혹은 감소세로 유지중이며,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경우에도 낮은 수준인 반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증가하고 있음
- 유럽 지역의 헤로인 소비는 안정적 추세지만,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지역은 펜타닐(Fentanyl) 같은 합성 아편류 남용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sup>1)</sup> 러시아의 경우 헤로인 부족으로 인해 데소모르핀(Desomorphine) 등이 전 국가적으로 그 대체제로 남용되었고 펜타닐(Fentanyl)의 경우 몇몇 지역에서 남용됨<sup>2)</sup>
- 아시아 지역에서 헤로인과 아편 남용은 세계 평균 수준으로 안정적이며 중앙아시아와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서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문제되는 마약류는 헤로인이고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아편류 남용은 높은 수준임

1) EMCDDA(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Annual Report 2011: The State of the Drugs Problem in Europe

2) Information provided by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annual report questionnaire (2010)

## 제1절 아편, 헤로인

- 중국 역시 헤로인이 주로 문제되는 마약류이며 2011년 현재 전체 등록된 마약류 남용자 비율 가운데 69.2%가 헤로인 남용자로 2001년 83%에서 줄었으나 최근 2007년 746,000명에서 2010년 100만 명으로 증가 추세임
-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아편류를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는데 그 수는 약 390만 명으로 추산되고, 부탄과 스리랑카 같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아편류 남용은 안정 또는 감소 추세임
- 케냐, 리비아, 모리셔스, 세이셸, 탄자니아 지역에서 헤로인 남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178만 명이 주사기 사용 마약 남용자로 추산되며 221,000명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음<sup>3)</sup>
- 2010년 현재 호주의 아편류 남용률은 0.2%로 안정화 단계이나 마약관련 사망자 1,790명 가운데 40%가 아편류 투약자임

3) Reference Group to the United Nations on HIV and Injecting Drug Use (2011 estimates)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 3. 생산 동향

- 2011년 아편 생산량은 7,000톤으로 2010년 생산량인 4,700톤보다 증가했으며 최대 아편 생산국인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2010년 3,600톤에서 2011년 5,800톤으로 역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동남아시아에서도 상당한 양이 증가했는데 미얀마는 2010년 580톤에서 2011년 610톤으로, 라오스는 2010년 18톤에서 2011년 25톤으로 각각 생산량이 증가함
- 전 세계적으로 양귀비 경작면적은 2010년 191,000ha에서 2011년 207,000ha로 늘어났고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양귀비 주 재배국가로 전체의 63%를 차지하였고 라오스와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20%, 중남미 국가들(주로 멕시코와 콜롬비아)이 7%로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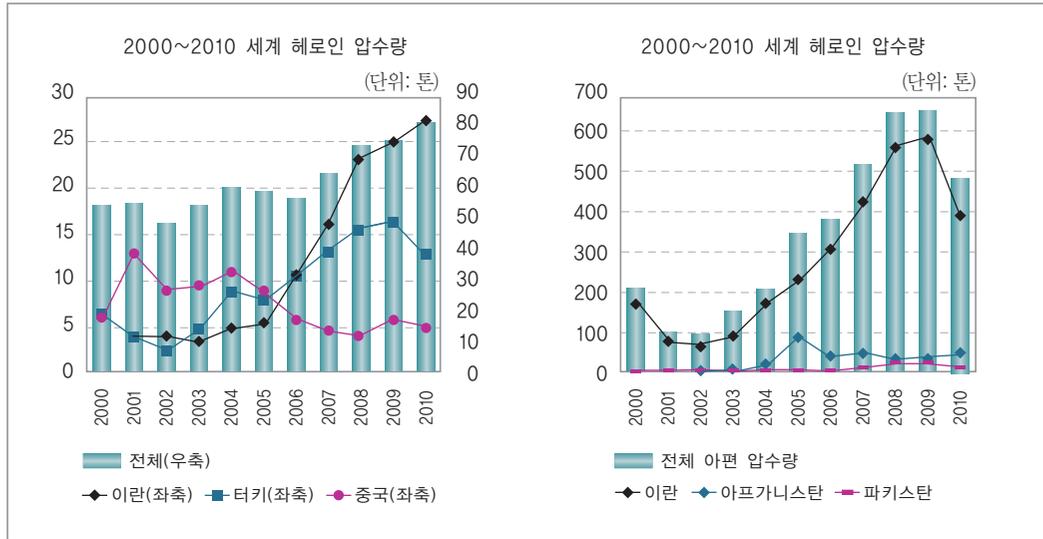
[표 2-3] 세계 아편·헤로인 생산량 (2004~2011)

(단위: 톤)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아편 생산량	4,850	4,620	6,610	8,890	8,641	7,853	4,736	6,995
헤로인으로 제조되지 않은 아편의 양	1,197	1,169	2,056	3,411	3,080	2,898	1,728	3,400
헤로인으로 제조된 아편의 양	3,653	3,451	4,555	5,479	5,561	4,955	3,008	3,595
전체 헤로인 제조량	529	472	629	757	752	667	384	467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2

## 4. 밀매 동향



[그림 2-1] 세계 헤로인·아편 압수량 추이(2000년~2010년)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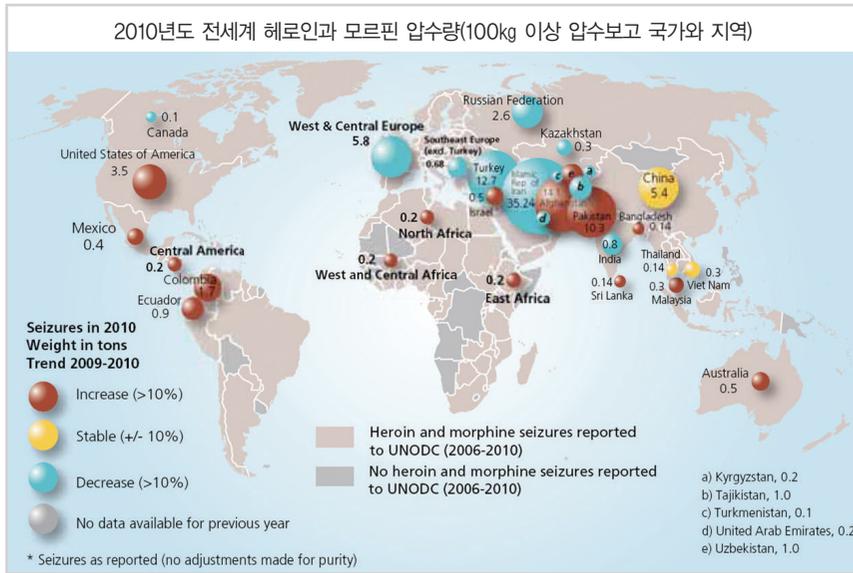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2

- 2009년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및 헤로인 압수량은 전 세계 압수량의 5.5% 및 2.9%를 차지(약 36톤 및 2.9톤에 해당)하고, 이란의 아편 압수량은 2009년 세계 아편 압수량의 89%를 차지 하면서 증가 추세이며, 특히 이란은 터키와 더불어 세계 1위 및 2위의 헤로인 압수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2009년의 경우 이란에서는 25톤(2008년 23톤), 터키에서는 16톤(2008년 15톤)이 압수되었음
- 2010년 이란의 헤로인 압수량은 27톤으로 전 세계 압수량의 33%를 차지하고, 터키는 13톤으로 16%를 차지하였으며, 이란의 경우 2009년 25톤에서 2010년 27톤으로 소폭 상승함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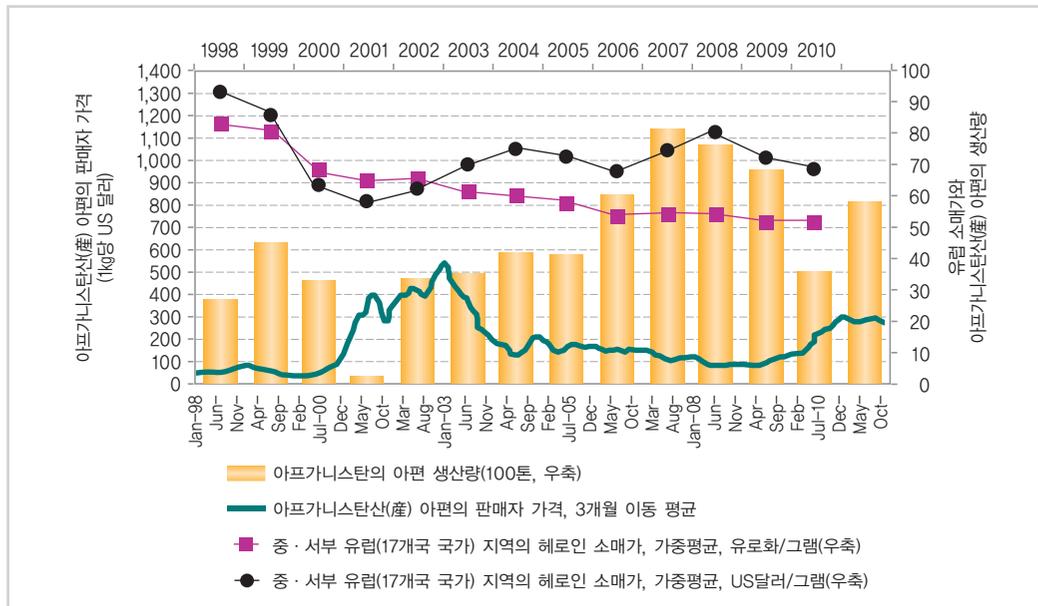
- 중국의 헤로인 압수량은 2009년 5.8톤에서 2010년 5.4톤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중국은 여전히 헤로인 수입국으로, 지난 몇 년간 공급원은 주로 동남아 지역(특히 미얀마)에서 제조된 헤로인이었지만 요즘은 상당량의 헤로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 및 경유 가능한 국가들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헤로인이 미얀마 북부지역에서 중국 북부 운남성을 통해 유입되고 있음
- 미국의 헤로인 압수량 추세는 2009년 2.4톤에서 2010년 3.5톤으로 증가했고 주로 남미 콜롬비아산 헤로인이 멕시코를 통해 유입되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헤로인 압수량은 1.7톤으로 2009년 압수량보다 두 배 많은 양이고, 에콰도르는 2010년 853kg의 헤로인이 압수되었는데 이는 2009년의 177kg보다 다섯 배나 많은 양임
- 캐나다는 2008년과 2009년 헤로인 압수량이 증가 추세였으나 2009년 213kg에서 2010년 98kg을 기록하며 급감함
- 아프리카지역에서 헤로인 시장의 확대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아프가니스탄 산(産) 헤로인이 동아프리카의 해안지역, 중서 아프리카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우회하기 때문임
- 이집트에서의 헤로인 압수량은 2009년 159kg에서 2010년 234kg으로 급증하였으며, 케냐의 경우에도 2009년 8.5kg에서 2010년 35kg, 나이지리아는 2009년 104kg에서 2010년 202kg, 탄자니아 역시 2009년 7.9kg에서 2010년 191kg으로 각 급증함

제1절 아편, 헤로인



[그림 2-2] 2010년도 세계 헤로인과 모르핀 압수량 (단위: 톤)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2



[그림 2-3] 1998~2011 아프가니스탄산(産) 아편 가격 및 생산량과 중·서부 유럽 지역의 헤로인 소매가 비교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2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 5. 국내 헤로인 유통추세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검거인원	1	1	1	1	0	0	18	5	0	4
압수량(g)	7	12	9	18	0	0	1,914	81	0	3.5

- 1970년대 초에는 매년 적지 않은 양의 헤로인이 압수되고 상당한 국내 사용자가 있었으나, 최근 10여 년간은 내국인 사용사범이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음
- 1990년대 초반까지는 태국 등 동남아에서 소비지인 북미 등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중간 경유지로 이용될 뿐이었음. 1997년 이후부터는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로부터 직접 국내로 밀반입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어 왔으나, 2007년도와 2008년도엔 적발 사례가 없다가 2009년도에 대량 적발되었고, 2010년도에 적발 건수 등이 감소하여 2011년도에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으나 2012년도에는 다시 적발사례가 보고되었음
- 헤로인은 1990년대 초반에는 나이지리아인이나 홍콩인 등 주로 외국인들에 의해서 운반되다가 1994~1997년에는 황금의 삼각지대의 마약밀매조직인 쿤사조직과 연결된 내·외국인들에 의해서 밀반입되었고, 1998년에는 태국 마약밀매조직이 주한 외교관사의 외국인 가정부와 공모, 태국으로부터 대량의 헤로인을 우편물로 위장하여 한국으로 밀반입한 뒤 이를 다시 미국으로 밀반출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2002년에는 방글라데시인들이 본국으로부터 헤로인 1,077g을 밀반입하였음
- 특히 2001. 7. 3회에 걸쳐 헤로인 원료물질인 무수초산을 직물로 위장, 이란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한 사건이 적발되었고, 2007. 9.경부터 2008. 3. 22.경까지 무수초산 약 15.48톤을 수출용 폐 탱크로리 차량의 탱크 등에 은닉, 부산항을 통해 이란을 경유 아프가니스탄에 밀수출한 사건과 2008. 3. 2. 무수초산 약 2.8톤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을 시도한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2007. 4. 7.경부터 2008. 2. 27.경 무수초산 50톤을 5회에 걸쳐 과산화수소로 위장하여 파키스탄으로 밀수출한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2009. 2. 13.경 인천항에서 무수초산 5톤을 섬유로 위장하고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한

## 제1절 아편, 헤로인

사건이 적발되었음

- 2008. 7. 2.경 무수초산 12톤을 엔진오일로 위장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이란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었으며, 2009. 8. 17.경 인천항에서 무수초산 10.64톤을 섬유로 위장하고 이란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고, 2010. 4.경 아프가니스탄인 및 파키스탄인 등이 2010. 8.경 부터 2010. 4.경까지 11회에 걸쳐 무수초산 3.7톤을 중고자동차 내부의 약 100kg 가량 기름통 속에 나눠싣고, 수출용 컨테이너에 중고 자동차 부품과 같이 적재하여 밀수출하였으나 미국 마약수사청(DEA)와 공조하여 아랍에미리트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을 적발하여 부산항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 저지
- 2009년도엔 대만에 거점을 둔 국제범죄조직이 캄보디아 또는 태국에서 대만으로의 루트를 이용 헤로인은 운반하다가 대만 세관에서 적발 사례가 증가하자, 캄보디아 또는 태국에서 한국을 경유 대만으로의 루트로 변경하여 한국인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고용하여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생산된 헤로인 4.94kg을 5회에 걸쳐 밀거래한 사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밀반입 루트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는 실례임
- 한편,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의 안전지대라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을 범죄지로 이용, 헤로인을 제조할 수 있는 원료물질을 밀수출하였다는 점에서 국내기업들이 보유한 마약원료물질(무수초산, 과망간산칼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음
- 최근 주요 헤로인 밀반입사건
  - 2002년 방글라데시인이 신발 밀창 등에 헤로인을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사례가 두 차례 적발
  - 2003년 이란인이 헤로인 약 7g을 밀반입
  - 2004년 김○○, 남○○ 등이 2004. 10. 9. 캄보디아에서 구입한 헤로인 10.43g을 콘돔 속에 포장 후 생리대 안쪽에 착용한 상태에서 베트남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 2006년 홍콩인이 헤로인 약 18.2g을 비닐봉지에 포장하여 바지 주머니에 은닉하고 홍콩 첵랍콕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 2009. 2.경 대만인이 헤로인 약 370.27g을 콘돔 6개에 나누어 담은 뒤 콘돔 4덩어리는 향문 안에, 콘돔 2덩어리는 바지 양쪽 주머니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으로

밀수출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 2009. 7.경 대만인 남성 3명이 헤로인 약 1.2kg을 콘돔 17개에 나누어 담고 각자의 항문안에 5~6개 가량 은닉한 채 캄보디아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 2009. 10.경 나이지리아인 피의자는 인도 델리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헤로인 334g을 어학 학습용 교재 케이스 안에 은닉한 뒤 국제특급우편을 이용 발송하자 이를 수령하여 밀반입
- 2010. 8.경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거주 친구가 헤로인 0.98g 및 해쉬시 3.57g을 DVD 케이스 안에 은닉한 뒤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자 이를 수령하여 밀반입
- 2012. 1.경 베트남인 3명이 베트남으로부터 한국으로 헤로인 3.58g 밀반입

## 제2절 코카인

### 1. 세계 개요

- 전 세계적으로 코카인 생산량은 줄어들었는데 이는 최근 5년간(2006년~2010년) 콜롬비아의 코카인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인 반면, 볼리비아와 페루에서의 코카 경작과 코카 생산이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하여 상쇄됨
- 2010년 코카인 남용자수는 1,330만 명에서 1,970만 명 사이의 안정화 단계로, 코카인 주요 소비 지역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주로 호주와 뉴질랜드)이며, 북미의 경우 특히 미국은 15~64세 인구 중 코카인 남용자의 비율이 2006년 3%에서 2010년 2.2%로 감소했으며, 유럽은 안정화 추세에 들어섰고 호주는 같은 기간 동안 코카인 남용이 증가하고 있음
- 중·서부 유럽의 남용자 수는 전체 코카인 남용자의 1/4 이고 북미는 1/3 이상으로 추산되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의 경우 제한된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코카인 남용이 증가 또는 최근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4] 세계 코카나무 제거 현황 (2005~2011)

(단위: 헥타르)

국 가	제거 방법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볼 리 비 아	수 작 업	6,073	5,070	6,269	5,484	6,341	8,200	10,460
	약제살포	138,755	172,026	153,134	133,496	104,771	101,939	103,302
에 과 도 르	수 작 업	18	9	12	12	6	3	-
페 루	수 작 업	7,605	9,153	10,188	11,102	10,091	12,239	-
베네수엘라	수 작 업	40	0	0	0	0	-	-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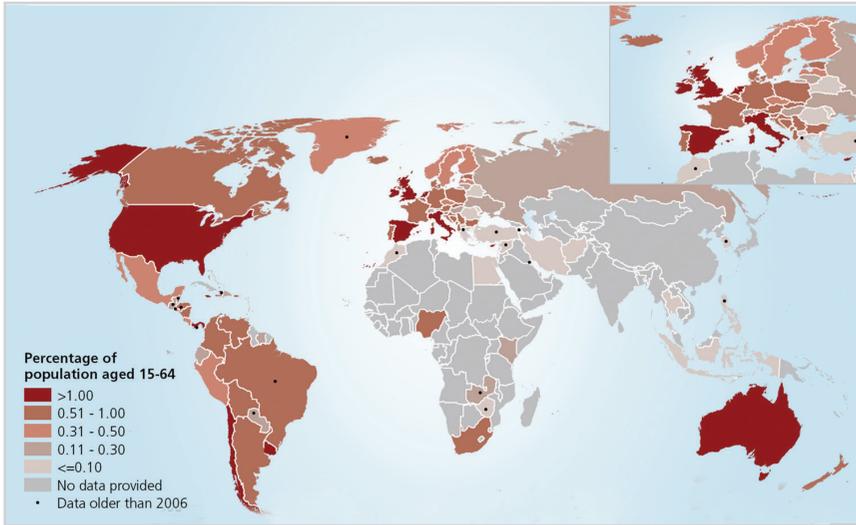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 2. 소비(남용) 동향

- 세계 최대 코카인 남용지역은 북미, 남미, 중·서부 유럽 지역으로, 미국은 15~64세 성인의 코카인 남용률이 2006년 3%에서 2010년 2.2%로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콜롬비아의 코카인 제조가 47% 하락한 것에 기인한 것임
- 중·남미 지역과 캐리비안 지역은 코카인 남용률이 높은 지역으로 각각 0.7%, 0.5%, 0.7%를 기록하였고, 2011년 베네수엘라는 성인 인구의 0.7%가 코카인 남용자로 보고됨
- 남미의 경우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 100만 명당 12.2명에서 31.1명이 마약관련 사망자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아래에 있지만 코카인은 중미와 캐리비안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이는 범죄조직의 코카인 밀매나 암시장 관련 분쟁으로 인한 높은 살인사건 발생 비율 때문임<sup>4)</sup>
-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코카인 남용률은 1.5%에서 1.9%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며, 서·중앙·남아프리카 지역은 코카인 남용이 높은 지역으로 보고되었는데 이것은 서아프리카 연안 국가를 통해 코카인 밀매가 증가하면서 이 지역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코카인 남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4)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1 Global Study on Homicide: Trends, Contexts, Data (2011)

제2절 코카인



[그림 2-4] 세계 코카인 남용률 (2010년 현재)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2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 3. 생산 동향

- 전 세계 코카 재배량은 지속적인 통제와 규제로 인해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18% 하락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33% 감소함
- 페루는 2010년 전년대비 2%(1,300ha) 증가한 61,200ha로 안정적인 코카인 경작량을 나타내며, 코카인 생산량은 2005년 이후 증가 추세임
- 볼리비아의 경우 코카인 생산량(추정치)은 2005~2009년 증가 추세로 대략 2007년 이후 볼리비아의 밀제조시설은 콜롬비아로부터 제조기술을 전수받아 코카잎에서의 코카인 추출이 더욱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표 2-5] 세계 코카나무 경작면적 (2001~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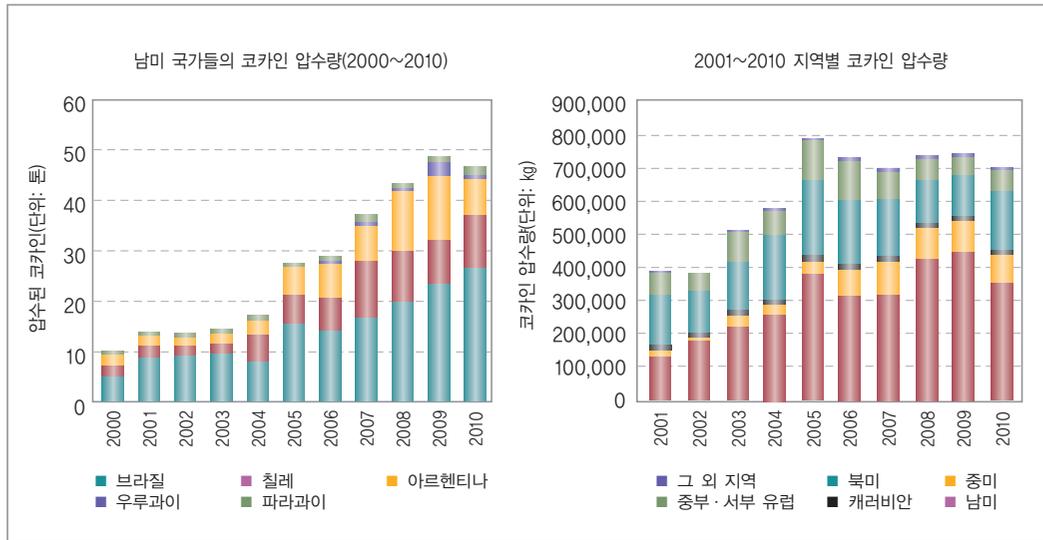
(단위: 헥타르)

국가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볼리비아		19,900	21,600	23,600	27,700	25,400	27,500	28,900	30,500	30,900	31,000
콜롬비아											
(소규모 경작지 합산 전)		144,800	102,000	86,000	80,000	86,000	78,000	99,000	81,000	68,000	57,000
(소규모 경작지 합산 후)		-	-	-	-	-	-	-	-	73,000	62,000
페루		46,200	46,700	44,200	50,300	48,200	51,400	53,700	56,100	59,900	61,200
전체		210,900	170,300	153,800	158,000	159,600	156,900	181,600	167,600	158,800	149,200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2

## 4. 밀매 동향

- 코카인의 세계 압수량은 2009년 732톤, 2010년 694톤으로 최근 몇 년간 비교적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의 코카인 압수와 제조를 비교했을 때, 압수량이 제조량을 훨씬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코카인 제조국가인 콜롬비아 인근에서 있었던 강력한 단속 때문임



[그림 2-5] 코카인 압수량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2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표 2-6] 세계 코카인 암거래 가격(소매)

(단위: 미국달러/g)

연도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오스트리아	71	90	103	101	78	99	110	97
벨기에	50	51	51	51	60	67	72	71
덴마크	91	122	82	82	81	74	99	93
핀란드	111	151	146	125	100	110	154	139
프랑스	75	90	99	94	97	96	103	83
독 일	57	68	73	79	74	86	91	87
그리스	75	96	93	79	110	110	110	104
아일랜드	94	79	87	88	88	96	103	97
이탈리아	90	101	113	114	104	112	111	99
룩셈부르크	107	96	114	105	106	89	89	89
네덜란드	33	50	59	59	60	59	63	63
노르웨이	165	170	155	155	151	164	154	154
포르투갈	36	47	49	55	56	55	66	66
스페인	56	70	76	76	79	83	89	83
스웨덴	87	99	93	92	101	96	138	104
스위스	74	89	86	86	74	75	65	82
영 국	84	90	91	79	87	91	74	62
미 국	83	90	84	85	94	104	119	120
전 세계 평균	85	97	100	95	91	95	94	85

## 제2절 코카인

[표 2-7] 세계 코카인 암거래 가격(도매)

(단위: 미국달러/kg)

연도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오스트리아	42,385	59,300	55,894	59,757	50,185	61,661	66,176	48,668
벨기에	28,111	29,610	32,480	32,480	32,480	47,958	53,757	46,675
덴마크	37,823	53,160	45,896	50,321	40,520	40,445	43,447	40,730
핀란드	51,804	62,150	68,315	68,315	56,611	61,660	66,176	62,573
프랑스	37,676	45,200	49,683	50,321	50,190	61,661	44,118	41,715
독 일	34,476	40,110	44,243	46,525	45,320	48,826	54,114	57,171
그리스	42,385	53,680	57,446	62,902	62,735	62,735	69,853	63,964
아일랜드	29,891	30,510	38,557	38,506	39,636	41,107	44,118	36,161
이탈리아	41,412	47,440	51,759	52,188	52,920	56,029	63,514	57,153
룩셈부르크	47,718	47,718	31,052	31,450	34,450	31,451	34,451	31,451
네덜란드	27,500	27,400	33,775	33,775	35,000	42,409	46,691	46,691
노르웨이	54,159	56,500	65,209	65,209	56,400	61,661	51,471	51,471
포르투갈	31,046	32,410	36,399	36,399	31,365	34,256	44,118	41,716
스페인	31,511	38,830	42,167	41,321	41,210	46,274	48,709	45,941
스웨덴	35,763	43,130	39,560	40,068	39,270	51,883	72,844	45,459
스위스	19,274	37,230	44,008	44,008	41,090	44,351	49,307	50,379
영 국	35,848	40,880	50,036	50,036	50,943	60,362	64,682	76,963
미 국 (미국달러/g)	24	24	24	24	23	23	26	27
전 세계 평균 (미국달러/g)	43	49	53	52	50	55	55	55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 5. 국내 유통추세

[표 2-8] 국내 코카인 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검거인원	2	6	5	7	4	7	3	0	4	3
압수량(g)	905	8	0	4,772	79	8,869	298	0	2,153	63.62

- 코카인이 국내에 들어온 것은 피검거자의 불법사용 개시 시기로 보아 1986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음
- 1988년 10월초 소위 ‘얼굴 없는 코카인 사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서울시내 호텔에 투숙 중인 올림픽 관광객에게 발송된 코카인 10g을 처음으로 압수(서울중앙지검)하였으나 수령인이 소유관계 부인한 후 출국함
- 코카인 밀매사범을 최초로 적발한 사례는 1990. 2. 21.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박○○ 사건(150g 압수)이고, 1990. 9. 20.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제 코카인 및 에메랄드 밀수조직 사건에서 코카인 976g을 압수함
- 그동안 코카인은 주로 남미교포나 남미인들이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하여 일본 등 제3국으로 밀수출하였으나, 2005년도에 한국 어학연수생들이 홍콩삼합회의 운반책으로 고용되어 코카인 20kg을 일본, 호주 등지로 수출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2006년도에는 인천공항을 출발 프랑스를 경유하여 룩셈부르크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코카인 약 4kg(시가 120억원 상당)을 밀수출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 되었고, 2008년도에는 브라질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코카인 8.8kg(시가 258억원 상당)을 밀수하려 한 일본인 운반책 3명을 적발하는 등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2009년도에는 외국인 영어강사가 미국에서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58.34g을 국내로 밀수입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고, 이 외에도 기타 마약이 원어민 강사들에 의해 밀수 및 투약이 폭넓게 퍼져 있는 것을 적발하였는데, 이들은 마약 투약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어 학생들에 대한 마약 전파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무분별한 외국인 강사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제2절 코카인

- 2010년도에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으나 2011년도에는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항을 출발 파나마를 경유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에서 코카인 2.1kg이 적발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코카인 63.6g 소지사범이 적발되는 등 한국을 코카인 밀수출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인터넷 및 국제우편을 통한 코카인 밀반입 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 2004년도 국내 코카인 밀수사건
  - 내국인 ‘오○○’ 사건 (2004. 6. 17. 인천지검)
 

2004. 6. 14.경 미국 뉴욕 거주 성불상 다○로부터 비타민제 용기 속에 코카인 4g을 은닉 후 페덱스 국제특송 화물편으로 인천국제항공을 통해 밀반입
  - 내국인 ‘음○○’ 사건 (2004. 11. 30. 서울중앙지검)
 

2004. 11. 8.경 미국으로부터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1g을 밀수입, 같은 달 29.경 코카인 2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사건특징 : 미국 유학중 코카인 중독, 압수된 코카인은 ‘크랙’ 이라 불리며, 보통의 코카인보다 약효가 몇 배 강하고, 중독성이 높은 마약임)
  - 내국인 ‘전○○’ 사건 (2004. 12. 1. 인천지검)
 

2004. 12. 1.경 미국 거주 불상자로부터 국제소포를 통해 코카인 약 0.5g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밀반입
- 2005년도 코카인 밀거래사건
  - ‘한국인 어학연수생 개입 캐나다산 코카인 밀거래’ 사건 (2005. 5. 수원지검)
 

2004. 4~5.경 사이 한국계 캐나다 시민권자 김○○는 홍콩의 국제 폭력조직 삼합회 캐나다 지부 하부 조직원(추정)으로 한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코카인 20kg을 호주, 일본 등지로 밀수출
- 2006년도 코카인 밀수출사건
  - ‘코카인 4kg 밀수출 네덜란드인’ 사건 (2006. 3. 29. 인천지검)
 

2006. 3. 27.경 네덜란드 국적(원적: 가봉)의 흑인 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을 출발 프랑스를 경유하여 룩셈부르크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공범 앤○○으로부터 코카인 약 4kg(시가 120억원 상당)을 은닉한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밀수출하려다가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 인천공항에서 적발

## ● 2007년도 코카인 밀수사건

## - 김○○ 사건 (2007. 5. 인천지검)

2007. 4. 경 피의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리)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원두커피 봉지 속에 코카인 약 3.2g을 은닉하여 미국 LA발 인천행 화물항공기 특송화물로 발송하여 밀수입

## ● 2008년도 코카인 밀수사건

## - ‘코카인 5.2kg 밀수출 일본인’ 사건 (2008. 9. 인천지검)

피의자들은 일명 ‘크○○○(나이지리아계 흑인으로 추정)’로부터 모든 여행경비 및 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피의자 사○○ ○○○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일명 ‘잭○’이 건네주는 마약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교부받아 대한항공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피의자 다○○○ ○○○는 대한민국에서 사○○ ○○○를 만나서 위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일본으로 가지고 가 크○○○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08. 8. 13.경 사○○ ○○○는 브라질 상파울루 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잭○으로부터 교부받은 코카인 5.2kg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신고 2008. 8. 14.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여 밀수입

## - ‘코카인 3.6kg 밀수출 일본인’ 사건 (2008. 9. 인천지검)

피의자는 나이지리아 국적 추○○ ○○○○ ○○○로부터 모든 여행 경비 및 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이 건네주는 마약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일본 항공편으로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다른 일본 항공편으로 환승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위 추○○ ○○○○ ○○○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을 서울에서 만나 위 여행용 가방을 건네주고 동인이 이를 일본으로 가지고 가 위 추○○ ○○○○ ○○○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여, 2008. 9. 12.경 피의자는 브라질 상파울루 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코카인 3.6kg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신고 2008. 9. 14.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여 밀수입

## 제2절 코카인

## ● 2009년도 코카인 밀수사건

- 외국인 영어강사 하○○○○○○사건 (2009. 9. 인천지검)

2009. 9.경 피의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핏 ○○○○와 공모하여 위 핏 ○○○○가 미국 애리조나주 템파에서 플라스틱 지퍼백 안에 코카인 58.34g을 은닉하고 우편물로 포장한 다음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하고, 피의자가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 ● 2011년도 코카인 밀수사건

- 외국 선박에서 대량의 코카인 적발사건 (2011. 4. 부산지검)

2011. 3.경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항을 출발하여 파나마를 경유, 같은 해 4.경 부산항에 입항한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에 코카인 2.1kg이 은닉되어 있는 것을 적발하였는데, 세관의 통보로 압수수색을 통해 적발하였고, 파나마에서 하선한 밀항자가 제3국으로 밀수출하려다가 유류한 것으로 추정

- 대학교 휴학생 이○○ 사건 (2011. 12. 서울북부지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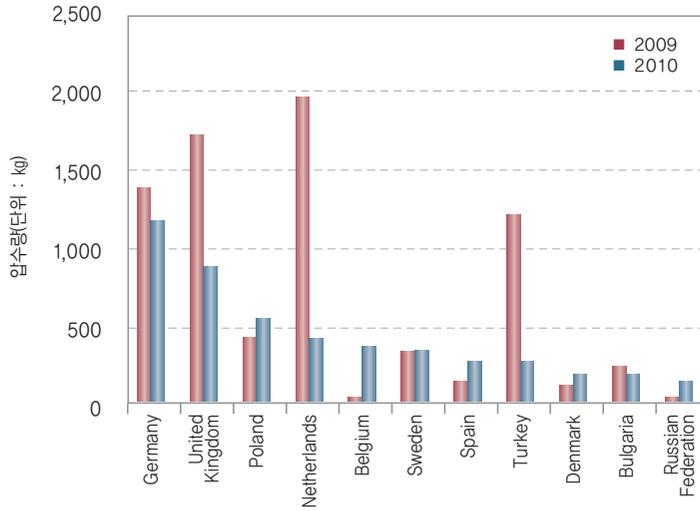
피의자는 2011. 12.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의자의 거주지 내 책상 서랍에 코카인 46.6g을 넣어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1. 세계 개요

- 2010년 현재 암페타민류 각성제(ATS)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남용되는 마약으로 조사되었으며 남용률은 0.3~1.2%인 1,400만~5,2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오세아니아, 북미, 중미 지역에서 주로 남용되며 아시아 지역 특히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ATS 남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밀조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밀조시설은 대다수가 밀매시장에 인접하고 있으며 원료물질은 지역 간 빈번한 밀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45톤으로 2009년의 31톤보다 44% 증가, 2008년의 22톤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압수량은 전년도인 33톤보다 42% 감소한 19톤으로 조사되었고, 엑스터시의 경우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전년도보다 약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몇 년간 새로운 향정물질 시장은 엑스터시나 암페타민같은 불법 각성제 효과를 모방해 왔으며, 식물 기반 제품도 불법 ATS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밀수조직들은 제조 방식을 상황에 맞춰 적응하고 있으며 합성물질의 제조 공법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단속을 피하고 있음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그림 2-6] 유럽 지역의 암페타민 압수량 (2009~2010)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2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 2. 소비(남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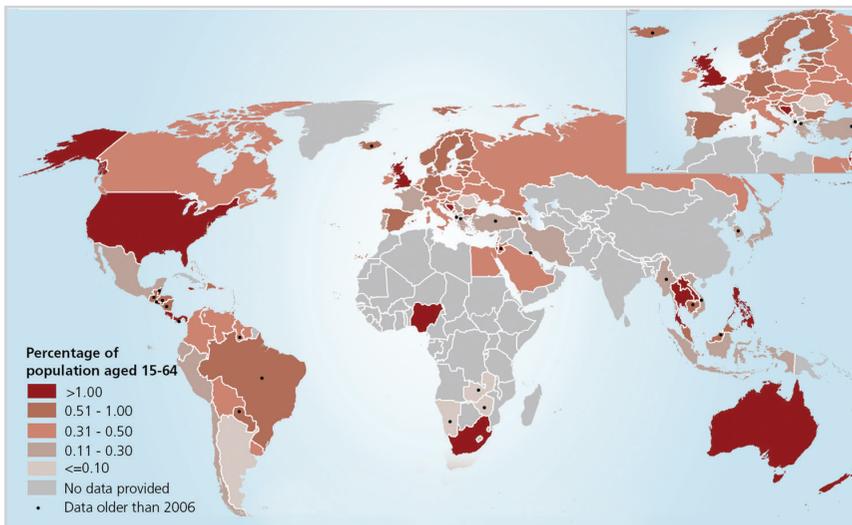
- 아프리카 지역 특히 카보베르데, 이집트, 가나, 나이지리아, 케냐에서 ATS 남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나이로비에서 암페타민과 Mandrax(methaqualone)을 한 번 이상 투약한 중등학교 학생의 비율은 2.6%이고 최근 6개월 이내 투약한 학생의 비율은 1.6%로 조사되었고, Miraa(khat의 지역 변종) 투약을 한 번 이상한 학생의 비율은 31.5%, 최근 6개월 이내 투약한 비율은 15.7%<sup>5)</sup>로 이는 유럽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암페타민 남용 비율과 비슷함
- 아메리카 지역의 ATS 남용률은 0.9% ~ 1.1%, 엑스터시류 남용률은 0.5% ~ 0.6%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됨
- 중미 지역의 ATS 남용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특히 엘살바도르 지역은 3.3%의 남용률을 기록했고, 벨리즈와 코스타리카가 1.3%, 파나마가 1.2%를 각 기록했으며, 남미 청소년들 사이에서 엑스터시같은 합성마약의 남용이 증가추세로 특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지역에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ATS 남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엑스터시는 안정화 추세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15~64세 인구의 약 0.2 ~ 1.3%가 ATS를 남용하고 있으며 메트암페타민 특히 결정형(crystalline)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고, 결정형 메트암페타민은 현재 브루나이, 일본, 필리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널리 남용됨
- 부탄, 스리랑카 같은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ATS 남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의 경우 ATS 남용이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있고 주로 도심지역에서 정제화된 메트암페타민이 남용되고 있음
- 유럽 전 지역에서 ATS 남용은 안정화 단계로, 중·서부유럽에서 엑스터시 남용률은 0.8%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이나, 동유럽 지역에서 ATS 남용률은 증가 추세이며, 핀란드, 라트비아,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메트암페타민 남용이 증가했다고 보고됨<sup>6)</sup>

5) Peter Koome and National Campaign against Drug Abuse Authority, "Role of school environment in alcohol and drug abuse among students: evidence from public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Nairobi"

6) EMCDDA(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Annual Report 2011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대양주의 경우 ATS 남용률은 1.7% ~ 2.4%, 엑스터시 남용률은 2.9%로 조사되었고, 2010년 호주에서 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 남용률은 2.3%에서 2.1%로 감소, 엑스터시는 2007년 3.5%에서 2010년 3%로 역시 감소했으며, 뉴질랜드에서 엑스터시 남용의 감소는 비슷한 효과를 내는 피페라진(piperazines), 카티논(cathinone), 메페드론(mephedrone) 등의 대체 약물 남용 증가를 야기하여 전체 남용비율이 상쇄되었으며<sup>7)</sup>, 마셜제도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한 번 이상 투약한 경우는 13.1%, 팔라우는 7.1%로 비교적 높은 편임



[그림 2-7] 세계 ATS 남용률 (2010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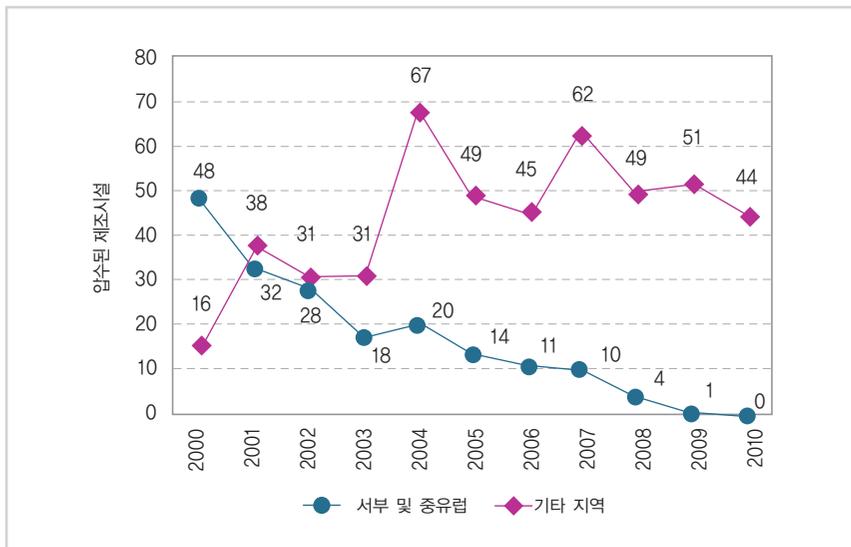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2

7) EMCDDA(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Annual Report 2011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 3. 생산 동향

- 전 세계적으로 2010년 한 해 동안 44개의 엑스터시 밀조시설이 단속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52개보다 감소한 것으로 호주 17개, 캐나다 13개, 인도네시아 12개, 말레이시아와 아르헨티나 각 1개로 조사되었고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엑스터시 제조는 감소했으나 제조시설의 생산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유럽의 경우 마약류 압수량이 증가한 반면 2010년도에 엑스터시 밀조시설은 한군데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1년도에 몇 개의 밀조시설이 발견됨
- 유럽지역에서 메트암페타민 시장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메트암페타민 밀조시설 적발은 2009년 361개, 2010년 328개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체코가 30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호주가 5개, 불가리아에서 2개의 이동식 밀조시설이 적발됨



[그림 2-8] 엑스터시류 제조시설 압수 현황 (2010년 현재)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2

## 4. 밀매 동향

- 2010년 세계 ATS 압수량은 대체적으로 안정화된 수준이며,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전체 45톤으로 2009년 31톤보다 44%가 증가, 2008년 22톤의 두 배가 넘는 양이 압수되었는데 이는 멕시코와 동아시아에서 상당한 양이 압수되었기 때문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암페타민의 총 압수량은 2009년 33톤에서 2010년 19톤으로 약 42%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중동 및 서남 아시아에서 압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 2010년부터 엑스터시 시장의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일례로 미국에서 엑스터시 남용이 증가세로 나타나는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엑스터시 압수량이 31% 증가했고 호주 역시 압수량이 증가했다고 보고됨
- 2010년 북미지역의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전체 압수량의 절반 가량인 22톤이며, 멕시코에서만 13톤이 압수되었으나 미국에서도 8.7톤이 압수됨
- 유럽의 경우 2009년 696kg, 2010년 576kg이 압수되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으며 스웨덴이 124kg, 터키가 126kg으로 두 나라의 합이 전체 유럽 압수량의 약 절반(43%)을 차지함
- 2010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ATS 압수량은 전체압수량의 96%를 차지했으며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16톤에서 20톤 사이로 전체 압수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1억 3천 6백만 정 of 정제형 메트암페타민이 압수되었는데 이는 9,400만 정이 압수된 2009년보다 44% 증가, 3,200만 정이 압수된 2008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이 중국(5,840만 정), 태국(5,040만 정), 라오스(2,450만 정)에서 압수되었는데 이는 지역 총합의 98%에 이르는 양임<sup>8)</sup>
- 캄보디아의 정제형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2010년 83,000정에서 2011년에는 세 배 이상 증가한 264,000정이 압수되었고, 결정형 메트암페타민 또한 증가하여 2010년 10kg에서 2011년 상반기에만 19kg이 압수되었으며, 많은 양의 원료물질 또한 압수되었는데 2010년 슈도에페드린이 포함된 약 2,000만 정의 조제 약품용 물질이 압수됨<sup>9)</sup>

8) UNODC Global Synthetics Monitoring Analysis, Reporting and Trends (SMART) programme

9) The 17th Asia-Pacific Operational Drug Enforcement Conference, Tokyo,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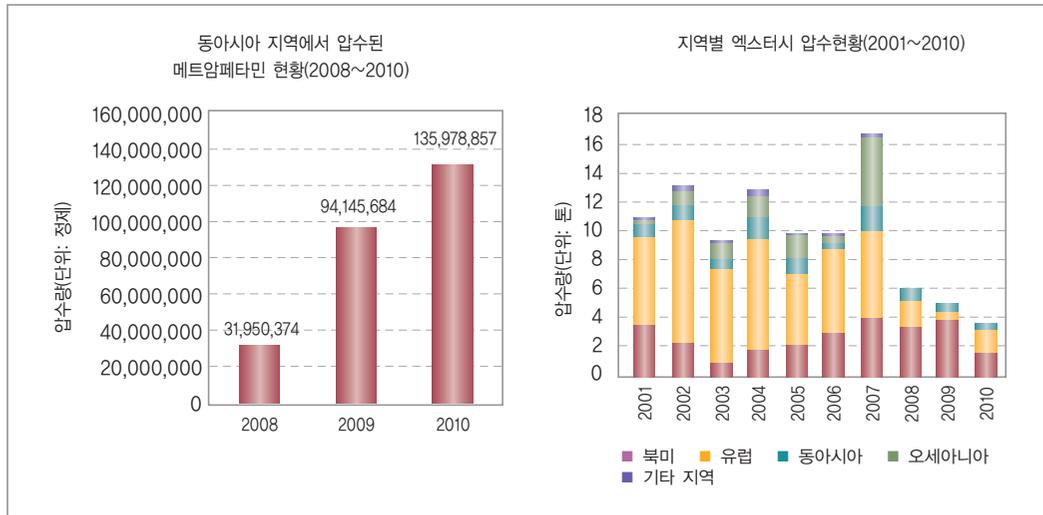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 거의 대부분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고된 동향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2008년 이후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2010년에는 311kg, 2009년에는 368kg이 압수됨
- 전체 암페타민 압수량의 70%를 차지하는 중동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10년 19톤의 암페타민이 압수되었고, 2009년 24톤에서 2010년 13톤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암페타민(대부분 Captagon<sup>10)</sup> 정제 형태) 압수량이며 2000년 이후의 상당한 양의 첫 감소임
- 유럽지역의 암페타민 압수량은 2009년 8.9톤에서 2010년 5.4톤으로 2008년 이후 하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2002년 이후 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임
- 엑스터시 압수량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캐나다 지역에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2010년 529kg이 압수되면서 2009년의 405kg을 훨씬 뛰어넘는 압수량이 보고됨
-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서 압수된 엑스터시의 압수량은 2010년 390만 정으로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양이며 캐나다가 엑스터시 제조 국가이자 주요 공급지임을 알려줌<sup>11)</sup>
- 유럽에서 엑스터시류 물질의 압수량은 2009년 595kg에서 2010년 1.3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UNODC에 보고되어 최근 몇 년간 감소세에 있던 유럽지역 엑스터시 시장의 회복을 알 수 있음
- 2010년 동아시아 지역에서 엑스터시 압수량이 31% 증가하였는데 중국 382kg, 말레이시아 130kg, 인도네시아 127kg의 엑스터시류 물질 압수량을 각 기록하였고, 호주는 2008년 54kg, 2009년 59kg, 2010년 112kg의 엑스터시류 물질 압수량을 기록하여 증가세에 있음을 나타냄

10) 상표명으로, 페네틸린(Fenethylamine)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암페타민이 포함된 불법 제조는 계속되고 있음

11) National Drug Intelligence Center, National Drug Threat Assessment 2011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그림 2-9] 메트암페타민 및 엑스터시 압수 현황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2

제 2 장 마약류 불법 유통현황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 5. 국내 유통추세

가. 1989년부터 2012년까지 검찰에 검거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공급조직은 692개파 2,819명임

- 범죄유형별

(기간: 1989~2012)

구 분	조직수	검거인원
염산에페드린 (원료밀수입)	11	59
메트암페타민	제 조	185
	밀 수	699
	밀 매	1,876
계	692	2,819

- 청별

(기간: 1989~2012)

청 별	조직수	검거인원
서울 중앙지검	239	1,007
부산지검	104	514
기 타	349	1,298
계	692	2,819

※ 인천지검(2012년도) : 1개파 6명임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나. 마약류 밀조 추이

- 1980년대까지 한국이 주요 메트암페타민 밀조 국가로서 전 세계 메트암페타민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바 있으나, 1990년대 들어 한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메트암페타민 밀조 조직이 거의 와해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산 메트암페타민이 밀반입되고 있음

## 다. 메트암페타민 밀거래가격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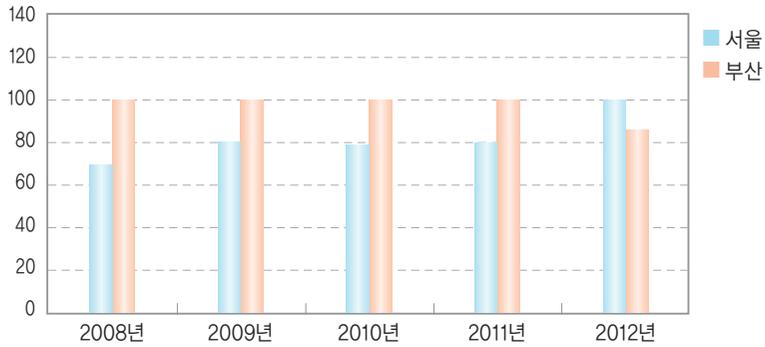
- 검찰의 단속활동이 체계적으로 개시되기 전인 1988년경 5,000원 내지 10,000원에 거래되던 1회 사용분 메트암페타민의 가격은 검찰의 단속활동이 강화되자 1991년경부터 10배 이상 폭등하였으나, 2000년에는 유통물량의 급증과 공급사범들의 박리다매 전략으로 g당 소매 가격이 대폭 하락하였다가 2004년부터 다시 상승하였고, 1회 사용분의 가격은 2001년부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표 2-9] 메트암페타민 연도별 밀거래가격

(단위: 만원)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구분	g당	30	130	90	90	50	70	80	79	80	100
	소매	46	4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5
1회 사용분	서울	10	9	9	9	10	10	10	10	10	10
	부산	6	10	10	10	10	10	10	10	10	10

2012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2-10] 메트암페타민 g당 소매 및 1회분 가격 추이

라. 행정사범<sup>12)</sup> 추이

[표 2-10] 연도별 행정사범 단속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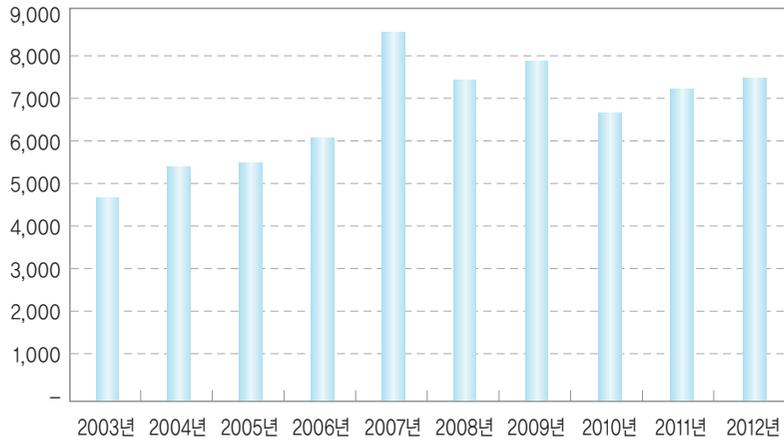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단속인원	4,727	5,313	5,354	6,006	8,521	7,457	7,965	6,771	7,226	7,631
증감률(%)	-40.3	12.4	0.8	12.2	41.9	-12.5	6.8	-15.0	6.7	5.6

-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던 행정사범은 1999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03년에는 전년대비 40.3% 대폭 감소한 이래 2004년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도 부터는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2012년도에도 행정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의 82.5%를 점유하여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반영

12) 암페타민류 각성제(ATS)로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등을 포함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그림 2-11] 향정사범 추세

## ● 2008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 밀수 사건 (2008. 1. 수원지검)

2008. 1. 중국 복건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이 혼합된 감기약 약 2.2kg을 차봉지에 넣어 밀폐하는 방법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으로 밀반입

- 권○○ 사건 (2008. 1. 수원지검 성남지청)

2008. 1.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90g을 꽃감 상자 안에 은닉하여 배편으로 인천항으로 밀반입

- 김○○ 밀수 사건 (2008. 1. 수원지검)

2007. 11.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엑스터시 약 8g을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은닉한 채 김포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원○○ 등 밀수 사건 (2008. 2. 대전지검)

2008. 1. 중국에서 필로폰 약 100g을 국제특급 우편으로 밀반입

- 박○○ 밀수 사건 (2008. 4. 청주지검)

2008. 4. 중국 북경공항에서 필로폰 약 50g을 콘돔으로 포장한 후 향문 속에 감추어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남북정기운항선을 이용한 밀수 사건 (2008. 5. 수원지검)

피의자 임○○은 2008. 4. 중국에서 피의자 쯤○○(중국 국적의 조선족)의 알선으로 필로폰 약 200g을 매수하여 인진쑤 컨테이너에 은닉한 후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있는 세관을 통관하고, 북한 나진항에서 남북정기운항선인 추싱호에 선적하여 부산항으로 밀반입

- 권○○ 밀수 사건 (2008. 5. 부산지검)

2008. 5. 김○○(중국 거주, 미체포)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 1,063g을 국제특송 우편으로 수취하여 밀반입

- 엑스터시 밀수 사건 (2008. 5. 수원지검)

피의자 루○○○○은 2008. 4. 미국에 거주하는 애○○로 하여금 MDMA(일명 엑스터시) 10.1g을 지퍼형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페덱스 특송화물로 발송하게 하여 밀반입

- 염○○ 밀수 사건 (2008. 5. 인천지검)

2008. 4.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 김○○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360g을 보푸라기 제거용 롤러 등에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송부하여 밀반입

- 박○○ 등 밀수 사건 (2008. 7. 대구지검 포항지청)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하는 일명 '보따리상'인 피의자가 2008. 7.경 중국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50g을 각 4개의 비닐 팩에 담아 생활용품인 먼지제거용 롤러 2개에 각 2개씩 넣고, 다른 생활용품들에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강○○ 밀수 사건 (2008. 7. 수원지검 성남지청)

2008. 7. 14. 중국에서 소포의 밑바닥에 필로폰 약 98.5g을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밀반입

- 김○○ 등 밀수 사건 (2008. 8. 대구지검 포항지청)

2008. 8. 14. 피의자가 중국에서 필로폰 320g을 팬티 속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남○○ 밀수 사건 (2008. 9. 서울중앙지검)
 

2008. 8. 29. 중국 심양에서 필로폰 304.45g을 팬티 아래 부분에 부착하여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마약류 원료물질 슈도에페드린 밀수 사건 (2008. 9. 인천지검)
 

피의자 남○○는 조선족 중국인으로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중국인 피의자 왕○○로부터 중국 복건성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자가 슈도에페드린<sup>13)</sup>을 국내로 발송하면 이를 수령하여 뉴질랜드로 다시 발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6회에 걸쳐 슈도에페드린 합계 6,886g을 중국 복건성에서 국내로 밀수입
- 김○○ 밀수 사건 (2008. 9. 서울서부지검)
 

2008. 9. 8. 필로폰 약 220g을 비닐로 싸 다음 사타구니 속에 감춘 채 중국 심양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유○○ 밀수 사건 (2008. 9. 부산지검)
 

2008. 2. 16. 필로폰 약 216.97g을 반으로 나누어 비닐봉지에 담고 바지 호주머니에 은닉한 상태로 중국 대련항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장○○ 등 밀수 사건 (2008. 10. 수원지검)
 

피의자들은 중국 심양에 거주하는 박○○에게 필로폰 약 1kg을 국내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박○○은 2008. 10. 13.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니○○ 히○○ 등 일본인 밀수 사건 (2008. 10. 인천지검)
 

일본 국적의 피의자들은 일본의 마약밀수조직으로부터 30만 엔씩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을 경유 다시 일본으로 밀수입하기 위해 일본에서 한국을 경유 말레이시아로 출발한 후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kg씩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13) 감기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약물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 필로폰 던지기<sup>14)</sup>사범 밀수 사건 (2008. 10. 수원지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 신○○, 박○○은 필로폰 매매로 재판중인 최○○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속칭 ‘던지기’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의자 민○○는 2008. 10. 13.경 중국 연길시에서 국제특급 우편을 통해 필로폰 약 1kg을 작업 대상자인 장○○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 남아프리카인 밀수 사건 (2008. 12. 인천지검)

알○○ ○○○○ ○○는 2008. 12. 3. 여행용 가방 안 양쪽 측면에 필로폰 약 3kg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카타르 도하 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오사카 공항에서 환승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 이○○○ 아○○○ 등 일본인 밀수 사건 (2008. 12. 인천지검)

일본 국적의 피의자들은 필로폰을 터키에서 한국을 경유 다시 일본으로 밀수입할 목적으로, 피의자 이○○○는 2008. 12. 19.경 터키 이스탄불에서 필로폰 약 856g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1개를 소지하고 터키항공에 탑승, 2008. 12.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피의자 나○○○는 서울역에서 위 가방을 인수하여 밀반입

## - 카○ 켄○○ 등 일본인 밀수 사건 (2008. 12. 인천지검)

일본 국적의 피의자들은 필로폰을 터키서 한국을 경유 다시 일본으로 밀수입할 목적으로 피의자들은 터키에서 여행용 가방 2개에 필로폰 1kg과 1.7kg을 각 나누어 은닉한 뒤 위 여행용 가방을 각자 소지하고 터키항공에 탑승, 2008. 12. 22.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 2009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 - 린○○ 등 대만인 밀수 사건 (2009. 1. 인천지검)

14) 마약류 사범이 형사처벌상의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그 마약류 사범의 동료나 조직원이 그 정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준비한 마약을 수수·매수하도록 유도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수수·매수한 것처럼 조작한 후,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하여 상대방이 검거되도록 하고 선처나 감형을 받게 하는 불법적인 수법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대만인 린○○은 중국인 일명 ‘안○’ 으로부터 여행경비 및 사례금 8천 인민폐(한화 160만원 상당)를 받는 조건으로 필로폰 1,181g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중국 푸둥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하고, 피의자 채○○ 등은 중국내 국제밀수조직 총책인 사○○으로부터 여행경비 및 사례금으로 10만엔(한화 140만원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 린○○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소지한 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 - 김○○ 밀수 사건 (2009. 1. 창원지검 진주시청)

2009. 1. 13. 중국 연길시에 있는 동북아세아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71.15g을 매수하고, 2009. 1. 15. 중국 연길시에서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약 59.65g을 밀수입

## - 이○○ 밀수 사건 (2009. 2. 서울북부지검)

중국 국적 조선족인 피의자는 2009. 2. 7. 필로폰 약 99.6g을 자신의 팬티 속에 소지한 채 중국 청도발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 - 일본인 여성 밀수 사건 (2009. 2. 인천지검)

피의자 토○○ ○○○는 2009. 2. 20.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1,031.3g을 액자 2개에 나누어 은닉하여 여행용 가방에 담아 카타르 항공편에 탑승한 후 카타르에서 환승하여 일본 오사카를 경유, 2009. 2. 21.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 남아프리카인 밀수 사건 (2009. 3. 인천지검)

판○○○ ○○○○ ○○○○는 2009. 3. 12.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1,070g을 서류가방에 넣고, 이를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채 요하네스버그 공항을 출발,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 김○○ 밀수 사건 (2009. 3. 서울중앙지검)

2009. 3. 18. 중국으로부터 녹차 상자에 은닉된 필로폰 235.5g을 인천항으로 밀수입

## - 황○○ 밀수 사건 (2009. 3. 춘천지검 속초지청)

피의자는 2008. 여름경 김○○(제보자)에게 접근하여 필로폰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배달해주면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김○○이 이를 승낙한 후 2009. 3. 23. 중국에서 김○○이 피의자로 부터 필로폰 327.92g을 건네받고, 2009. 3. 26. 속초국제여객터미널로 밀수입

- 일본 야쿠자와 연계된 필로폰 국제밀매조직 사건 (2009. 3. 부산지검)

일본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구미' 출신인 이○○○ ○○○ 등 피의자들은 일본에 있는 모○○(일본인, 야쿠자 간부)의 지시를 받고 미리 밀반입하여 국내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09. 3. 20. 필로폰 약 1,021.33g을 와이셔츠 포장 박스 4개에 250g씩 분산하여 숨긴 채 판매하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 엑스터시 등 밀수 사건 (2009. 4. 수원지검 안산지청)

피의자 박○○(조선족 여성)은 2009. 4. 9.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엑스터시 298정, 케타민 82g을 국제우편물로 발송한 것을 수령하여 밀수입

- 박○○ 밀수 사건 (2009. 4. 인천지검)

피의자 2009. 4. 23. 필로폰 195.24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상태로 중국 연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 나이지리아 마약조직원 밀수 사건 (2009. 5. 인천지검)

피의자 조○○ ○○○ ○○(남아프리카 국적 백인)는 남아프리카에서 운동화 두 켤레 밀창에 필로폰 1,017g을 나누어 은닉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밀수하고, 서울 중구 소재 뉴서울호텔 1014호에서 피의자 코○○ ○○(일본 국적 여성)와 타○○○○(일본 국적 여성)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고, 피의자 코○○ ○○와 타○○○○는 위 호텔 1111호에서 피의자 아○○ ○○○○ ○(나이지리아 출신 일본 귀화 흑인)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

- 다국적 마약 밀수 사건 (2009. 6. 인천지검)

피의자 벤○○○○○ ○○○○(남아프리카 국적 백인)는 필로폰 1,041g을 가방에 은닉한 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출발 싱가포르에서 환승하고 2009. 6. 2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밀수입(피의자 나이지리아 국적 흑인 우○○○○ ○○○○과 일본 국적 여성인 코○○ ○○는 국내에서 위 가방을 건네받아 일본으로 출국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김○○ 밀수 사건 (2009. 7. 부산지검)  
2009. 7. 26. 필로폰 95.62g을 화장품용기 2개 안에 은닉한 채 중국 상해 푸둥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 이○○ 밀수 사건 (2009. 7. 인천지검)  
2009. 6. 26. 필로폰 205g을 자전거 타이어 안에 은닉한 채 중국 단둥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 장○○ 밀수 사건 (2009. 8. 부산지검)  
2009. 8. 20. 필로폰 40g을 콘돔에 넣어 자신의 질 속에 넣고, 필로폰 201g을 보이차 포장박스 2개에 은닉하여 중국 위해에서 비행기에 탑승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 이○○ 등 밀수 사건 (2009. 9. 인천지검)  
피의자 이○○는 공범 윤○○의 부탁을 받고 2009. 9. 11. 필로폰 137.94g을 담뱃갑에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부산 소재 피의자의 주거지로 송부하여 밀수입
- 장○ 등 밀수 사건 (2009. 10. 인천지검)  
피의자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윤○○과 공모하여 필로폰 400g을 플라스틱 파이프 36개 속에 나눠 넣고 스티로폼 박스로 은닉한 뒤 2009. 9. 28.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밀수입
- 태국인 야바 밀수 사건 (2009. 10. 전주지검 군산지청)  
피의자 프○○○ ○○는 태국에 거주하는 와○가 야바 160정을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2009. 10. 17.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수령하여 밀수입
- 서○○ 밀수 사건 (2009. 12. 청주지검)  
2009. 11. 28. 중국에서 필로폰 295.6g을 여성용 거들로 사타구니에 은닉한 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밀수입
- 장애인 이용 밀수 사건 (2009. 12. 대구지검)  
피의자 정○○는 남편 김○○가 필로폰 수수 등으로 구속되자 김○○의 선처를 위하여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피의자 공○○ 등과 공적작업<sup>15)</sup>을 하기로 공모하고, 정신지체 1급 장애인 피의자 김○○을 포섭, 김○○이 태국으로 출국하여 공○○로부터 필로폰 41.05g을 건네받아 팬티에 은닉한 상태로 2009. 5. 11.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 2010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 ㄱ○○ 밀수 사건 (2010. 1. 서울중앙지검)

2009. 12. 경 필로폰 약 104g을 팬티 속에 은닉하여 중국남방항공기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국내 조직포력배와 연계된 국제 마약 밀수 사건 (2010. 1. 서울중앙지검)

피의자들은 2010. 1. 6.경 멕시코 자포판시에서 필로폰 약 48.2g을 앨범 속에 넣고 박스로 포장한 다음 국제특송 화물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ㄴ○○ 밀수 사건 (2010. 3. 인천지검)

2010. 3.경 피의자들은 중국에서 두꺼운 사전 안에 필로폰 약 987.9g을 은닉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중국 대련에서 화객선을 타고 인천항으로 입국하게 하여 밀수입

- 중국인 ㄱ○○ 밀수 사건 (2010. 5. 인천지검)

2010. 5.경 피의자 ㄱ○○은 중국 위해에서 중국거주 ㄴ○○으로부터 필로폰 약 703.3g이 은닉된 오디오 스피커를 건네받아 인천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1. 필로폰 1,978g 밀수사범 검거 및 필로폰 압수(인천지검)

- 루마니아인 ㄱ○○ ㄴ○○ ㄷ○○○ 밀수 사건 (2010. 8. 인천지검)

2010. 8.경 필로폰 984.8g과 993.6g 도합 1,978.4g을 불투명 테이프로 각각 나누어 포장하여 쿠킹호일로 감싼 후 여행용 가방 옆면에 은닉하고 가나를 출발하여 두바이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밀수입

15) 다른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도운 공적사항을 만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상대로 마약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여 수사기관이 체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ㄴ○○ 밀수 사건 (2010. 9. 인천지검)
 

2010. 8.경 피의자는 중국에 있는 ㄴ○○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80.16g을 휴대폰 배터리 케이스에 은닉하여 보따리상을 통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 ○○○ 밀수 사건 (2010. 9. 인천지검)
 

2010. 9.경 피의자는 중국에 있는 ㅎ○○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37.79g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고 그 중 1개는 소형 액자 내부에, 2개는 중형액자 내부에 각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ㅎ○○ 밀수 사건 (2010. 9. 수원지검 성남지청)
 

2010. 9.경 피의자는 중국 거주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300g을 자동차 HID램프 안정기 15개에 은닉하여 자동차부품 화물로 위장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ㅎ○○ 밀수 사건 (2010. 10. 서울남부지검)
 

2010. 3.경 피의자는 중국 마카오에 있는 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95g을 컴퓨터용 가방 밑면과 측면에 비닐봉지 15개로 나누어 은닉하여 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엑스터시 밀수 사건 (2010. 10. 인천지검)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0. 10.경 피의자 ㄴ○○이 엑스터시 400정을 생리대 속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게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 ㄴ○○ 등 밀수 사건 (2010. 10. 인천지검)
 

피의자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ㄴ○○ 등과 공모하여 2010. 10.경 보따리상을 통하여 필로폰 410.8g을 옷상자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 싱가포르인 밀수 사건 (2010. 11. 인천지검)
 

2010. 11.경 피의자들은 동남아시아 마약밀수 조직원들로부터 필로폰 대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거쳐 말레이시아로 밀반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영양갱과 비누로 위장한 필로폰 약 1kg을 국내로 밀수입한 후 다시 말레이시아로 밀반입하려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적발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 2011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 700 밀수 사건(2011. 1. 춘천지검)
 

피의자는 2011. 1.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45g을 여행 가방에 은닉한 채 배를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 800 등 밀수 사건(2011. 2. 부산지검)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1. 2.경 중국 심양에서 여행 가방에 필로폰 약 2kg을 은닉한 채 중국남방항공기를 이용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2개국에 걸친 밀수 사건(2011. 2. 제주지검)
 

피의자들은 2010. 10.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필로폰 약 11g을 화장품에 은닉한 채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하고, 같은 해 12.경 마카오에서 필로폰 약 13g을 몸에 은닉하고, 2011. 1.경 중국 광저우에서 필로폰 30g을 몸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각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루마니아인 밀수 사건(2011. 3. 인천지검)
 

피의자(나이지리아 마약밀수조직에 포섭된 운반책)는 2011. 3.경 여행 가방에 필로폰 약 1,079g을 은닉한 채 아프리카 말리를 출발, 모로코, 카타르를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중국인(조선족) 밀수 사건(2011. 3. 인천지검)
 

피의자는 2011. 3.경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64.5g을 치약튜브 안에 은닉한 채 중국항공기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탈북자 가족 밀수 사건(2011. 4.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의자들은 2010. 11.경부터 2011. 2.경까지 5회에 걸쳐 중국에서 필로폰 약 200g을 몸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캐나다 교포 및 유학생 밀수 사건(2011. 4. 서울지방경찰청)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1. 3.경 캐나다에서 필로폰 약 1.2kg을 국제특송 화물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나이지리아인 주도 밀수 사건(2011. 4. 인천지검)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1. 4.경 운반책임 한국여성을 이용하여 여행 가방에 필로폰 약 3,159g을 은닉한 채 아프리카 말리를 출발, 프랑스를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 밀수 사건(2011. 5. 서울남부지검)
 

피의자는 2011. 4.경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62g을 가방에 은닉한 채 화물로 위장, 중국 항공기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나이지리아 마약조직 밀수 사건(2011. 6. 인천지검)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1. 6.경 운반책임 미국 여성을 이용하여 가방에 필로폰 약 2,603g을 은닉한 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발, 홍콩을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보따리상 이용 밀수 사건(2011. 6. 인천지검)
 

피의자는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6.경 중국 청도항에서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150g이 은닉된 장난감을 소지하고 승선하게 한 다음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
- 조직폭력배(청주지역 폭력조직 '신석만이파' 부두목) 연루 밀수 사건(2011. 7. 청주지검)
 

피의자들은 2010. 3.경부터 2011. 6.경까지 3회에 걸쳐 태국에서 필로폰 약 37.7g을 국제 우편물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중국마약조직 개입 밀수 사건(2011. 9. 인천지검)
 

피의자(국내 여행사 직원)는 2011. 9.경 중국 청도에서 성명불상의 중국마약조직원으로부터 필로폰 약 2,017g이 든 수화물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휴대하고 중국 동방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지계꾼에 의한 밀수 사건(2011. 10. 서울중앙지검)
 

피의자(마약운반책으로 속칭 지계꾼)는 밀수책(별건 수배로 중국 도피 중)과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필로폰 약 220g을 인천국제 공항을 통해 밀수입
- 국제특송 화물이용 밀수 사건(2011. 11.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피의자(모두 수회 마약전과)들은 공모하여 2011.경 중국 광저우에서 조립식 자전거 부품속에 필로폰 약 97.81g을 은닉한 후 국제특송 화물을 이용, 국내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천국제 공항을 통해 밀수입

- 제3국 밀수출 기도 사건(2011. 12. 인천지검)

피의자들은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괌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여 2011. 11. 경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2kg이 은닉된 여행 가방을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2012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 조직폭력배(인천 폭력조직 '꿀망파' 행동대원) 연루 밀수사건(2012. 2. 서울중앙지검)

피의자들은 2012. 2.경 중국 단둥에서 700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98g을 신체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반입

- 700 밀수사건(2012. 3. 인천지검)

2012. 3.경 필리핀에서 000와 공모하여 골프 캐디백 밑부분에 필로폰 1,400g을 은닉하여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700 밀수사건(2012. 7. 인천지검)

2012. 7.경 홍콩에서 캐리어백에 필로폰 1,003g을 은닉하여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캄보디아産 필로폰 밀수사건(2012. 7. 의정부지검)

피의자들은 2012. 7.경 캄보디아에서 먹지로 필로폰 616.34g을 감싼 후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필리핀 가사도우미 밀수사건(2012. 8. 부산동부지청)

피의자는 2012. 7.경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7.4g을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영국인 밀수사건(2012. 8. 인천지검)

피의자는 2012. 8.경 피지에서 필로폰 2,491g을 여행용 트렁크에 은닉하여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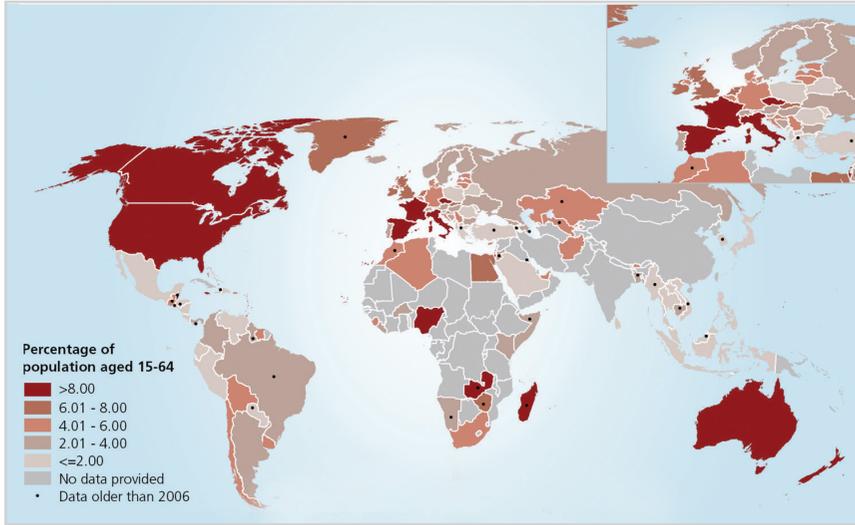
- 대만 마약조직과 국내폭력조직 연계 밀수사건(2012. 8. 부산지검)  
부산 영도파 행동대원을 포함한 피의자들은 대만 마약밀수조직과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8.경까지 2회에 걸쳐 대만으로부터 필로폰 5kg을 국내로 밀반입
- 보따리상 이용 밀수사건(2012. 8. 부산지검)  
피의자들은 보따리상과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8.경까지 13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3.9kg을 국내로 밀반입
- ㄱㅇㅇ 밀수사건(2012. 8. 수원지검)  
2012. 8.경 중국 단둥에서 필로폰 215.64g을 신체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반입
- 태국인 야바 밀수사건(2012. 9. 인천지검)  
2012. 8.경 국제우편을 통해 태국으로부터 야바 400정을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슈도에페드린 밀수사건(2012. 9. 인천지검)  
중국인 피의자는 2012. 8.경부터 9.경까지 5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 9,943정을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ㅎㅇㅇ 밀수사건(2012. 9. 안양지청)  
2012. 9.경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40g을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일본야쿠자 연계 밀수사건(2012. 10. 인천지검)  
피의자들은 일본야쿠자 조직원과 연계하여 2012. 8.경 중국 상해에서 필로폰 2kg을 화물선에 은닉하여 포항항으로 밀반입한 후, 이를 다시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 2012. 10.경 같은 방법으로 밀반입한 필로폰 5.4kg을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 싱가포르인 밀수사건(2012. 10. 창원지검)  
2012. 10.경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말레이시아로부터 필로폰 11.66g을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독일인 밀수사건(2012. 11. 인천지검)  
피의자는 케냐 마약조직원으로부터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필로폰 운반을 의뢰받고, 2012. 11.경 케냐에서 필로폰 1.76kg을 배낭 속에 은닉하여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제4절 대마

### 1. 세계 개요

- 대마초(Cannabis herb)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로, 2010년 현재 대마류(Cannabis)의 전 세계 남용인구(15~64세)는 약 2.6~5%인 1억1천9백만~2억2천4백만 명으로 추정됨
- 전체적으로 2010년 남용률은 오세아니아(특히 호주와 뉴질랜드) 지역이 9.1~14.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북미 지역(10.8%), 서부·중부 유럽(7%) 순임
- 서부 및 중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대마류 남용 증가가 보고되었고, 남미 지역에서는 감소함
- 대마수지는 중동과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대부분 남용되고, 대마수지와 대마초 시장은 북아프리카와 유럽지역이 비슷하며, 미국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마초가 대부분 남용됨
- 유럽내 대마수지 생산은 매우 적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대마수지 시장인 북아프리카는 유럽의 우선공급자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산(産) 대마수지는 전통적으로 모로코를 통해 유럽에서 소비되어 왔으나 최근 우선공급자로서의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 세계적인 대마수지 주요 공급자로 부상함

제4절 대마



[그림 2-12] 세계 대마 남용률 (2010년 현재)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2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 2. 소비(남용) 동향

- 대마는 전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생산, 밀매, 소비되는 마약류로 전체 불법 마약류 남용자의 75%, 대략 1억70만 명으로 추산됨
- 아프리카 지역, 특히 서부·중남아프리카의 대마 남용률은 15~64세 인구대비 5.2~13.5% 수준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됨
- 아메리카 지역의 대마 남용률은 6.6~6.9%로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미국의 경우 2010년 15~64세 인구대비 14% 수준(2009년 13.7%)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2011년에 25%(2010년 24.5%)로, 합성대마는 11.4%로 보고됨
- 아시아 전역에서 대마 남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지역 역시 증가 추세임
- 유럽은 대마 남용률이 5.2%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으며, 최근 서부·중유럽 지역에서 대마 남용이 안정화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청소년의 담배 흡연 비율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으며, 대마 대신 다른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혹은 대마 투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유럽지역의 대마 남용률 저하의 원인인 것으로 조사됨<sup>16)</sup>
- 오세아니아 지역의 대마 남용률은 9.1~14.6%로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호주는 2010년 대마 남용률이 10.3%로 자국에서 가장 널리 남용되는 마약류이고, 뉴질랜드 역시 대마가 널리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임

[표 2-11] 서부 및 중유럽 지역의 연령대별 대마 남용률 (2010~2011)

연도 \ 연령대	15~24	15~34	15~64
2010	16%(1,000만)	12.6%(1,700만)	6.8%(2,300만)
2011	15.2%(950만)	12.1%(1,600만)	6.7%(2,250만)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2

16) EMCDDA(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Annual Report 2011

### 3.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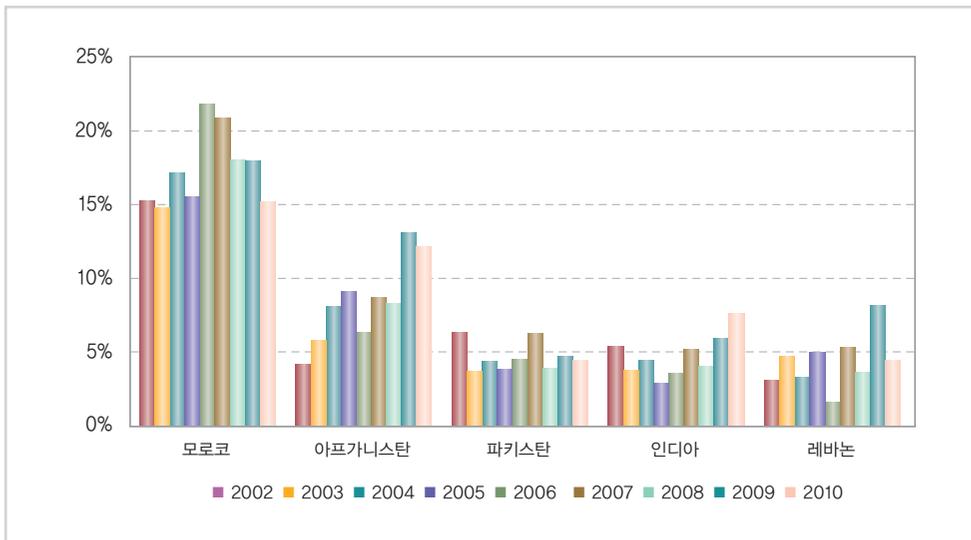
- 대마류는 실제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남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불법 마약으로 특히 대마초는 원거리 밀거래되는 대마수지와는 달리 대부분 지역 내에서 생산되어 밀매되고 있고, 2008년 대마초 세계 생산량 추정치는 13,300~66,100톤임
- 2009~2011년 간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대마수지 주요 생산지인 아프가니스탄은 최근 재배농가가 대마수지의 수익성으로 인해 대마 재배를 선호하고 있고, 대마 재배면적은 2010년 9,000~29,000ha이었고, 생산량은 2010년 1,200~3,700톤으로 추정하였음
- 유럽 내에서 국내 소비 목적의 대마 공급을 위해 실내 경작(indoor cultivation)이 급증하고 있는것이 최근 동향인데,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실내경작이 증가<sup>17)</sup> 하고 있으며 이것은 “grow shop” 또는 “head shop”이라 불리는 실내 경작에 필요한 장비를 판매하는 점포들이 있기 때문이며, 보통 이들은 소규모 경작을 하거나 범죄조직에 의해 운영되어 주요 생산지가 됨
-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가운데 대마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지만 대마 생산에 대한 강력한 정책으로 지난 5년 동안 매년 5,000에서 6,000개의 ‘grow-op<sup>18)</sup>’ 이 철거되었고 이러한 강한 제제로 인해 소위 ‘coffee shop’ 이라는 개인적으로 대마 흡연이 가능한 장소 또한 줄어들음
- 또한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의 지식과 장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대마 종자 또한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소포 등의 방법으로 전달받아 실내경작을 하게 되는데 UNODC 조사를 통해 2011년 인터넷에서 100~200개의 종자 은행(seed bank)을 발견함
- 일본의 경우 역시 재배 도구와 방법이 알려져 실내경작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1년 이후 대마 관련 범죄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마 재배 사범은 증가한 반면 대마 밀수 사범은 큰폭으로 감소하여, 대마 재배가 밀수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 들어 미국, 네덜란드, 독일은 대마초(‘Sinsemilla’)의 THC성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17) EMCDDA(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Annual Report 2011: The State of the Drugs Problem in Europe

18) 대마를 재배한 기록이 있는 집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농도 변화를 보고 하였는데, 미국은 46,211개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1990년 초반~1990년 후반 사이에 THC농도가 6%에서 13%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이후 최근 10년은 거의 11%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약 50개소의 '커피숍(Coffee Shop)' 에서 수거한 샘플을 조사한 결과, 2000년 이후 THC농도는 9%에서 19%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4년 이후 감소 추세를 지속하다 2009년에는 15% 수준으로 보고된 반면, 독일은 1997년 5%에서 2004년 10%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 8%로 다시 소폭 감소하였음



[그림 2-13] 대마수지 주요 공급 국가 (2002~2010)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2

## 4. 밀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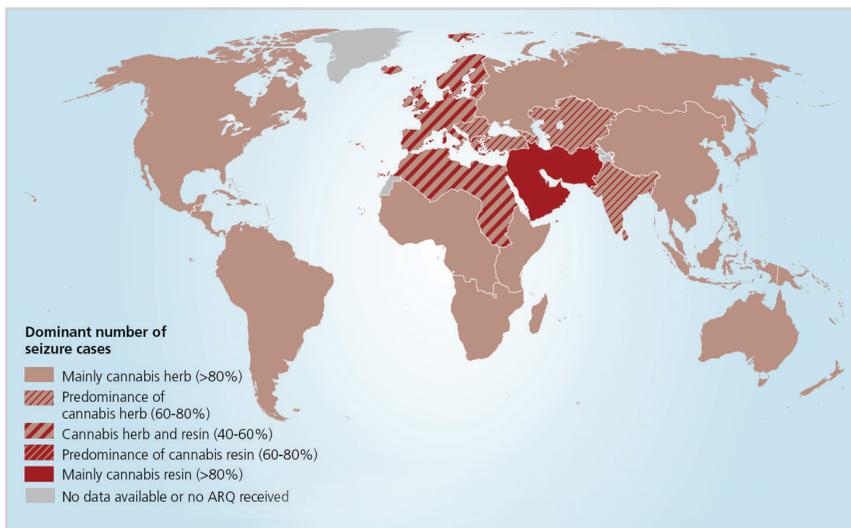
- 모로코에서 모든 형태의 대마 압수량은 감소했으며 'kif' 라 불리는 대마수지로 가공 가능한 건조상태의 대마의 압수량도 2009년 223톤에서 2010년 187톤으로 감소함
- UNODC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공동으로 2009년~2011년의 아프가니스탄의 대마 경작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프가니스탄의 대마 풍작<sup>19)</sup>은 2010년 1,200톤~3,700톤의 대마수지 생산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마수지 공급국가로 부상함
- 파키스탄의 경우 2008년부터 대마수지 압수량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212톤이 압수되었는데 이는 2007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양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2010년 압수된 대마수지의 원산지가 아프가니스탄산(産)으로 보고 있으며, 최종 목적지는 캐나다와 스리랑카로 분석되었고, 터키의 대마수지 압수량도 증가추세로 2009년 10톤에서 2010년 29톤으로 크게 증가함
- 야생 대마가 넓은 지역에서 자생하는 카자흐스탄은 대마 압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마약류 밀매와 불법 마약 남용에 대응하여 공급 축소에 집중, 남쪽 국경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압수량이 증가한 것으로 단순히 이 지역의 생산량 증가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음
-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마수지 수입 시장으로, 전통적으로 모로코로부터 들어왔으나 최근 대마 경작과 생산은 감소세에 있으며 2010년 566톤의 압수량을 기록함
- 최근 북미와 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마초 압수량은 증가추세로, 콜롬비아는 2009년 209톤에서 2010년 255톤으로 증가했고, 브라질은 2010년에 155톤, 파라과이는 2009년 84톤을 기록했으며, 베네수엘라는 2009년 33톤에서 2010년 39톤을, 볼리비아는 1,069톤을 각 압수했다고 보고함
- 미국은 2009년 2,049톤, 2010년 1,931톤의 대마초를 각 압수했으며 같은 기간에 멕시코는

19) 아프가니스탄은 1ha 당 128kg의 대마수지 생산, 모로코는 1ha 당 40kg의 대마수지 생산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2,105톤에서 2,313톤으로 증가했고, 캐나다는 34톤에서 51톤으로 상당히 증가함

- 2010년 미국에서 압수된 대마초 가운데 오직 7%만이 자국에서 생산된 것이며, 비록 캐나다와 멕시코가 대마초의 주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나머지 압수량 가운데 상당량은 원산지 미상임



[그림 2-14] 세계 대마초 및 대마수지 현황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2

## 5. 국내 대마사범 추이

[표 2-12] 연도별 대마사범 및 대마초 압수량

(단위: 명)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단속인원	1,965	1,608	1,231	1,032	835	1,170	1,045	1,712	1,837	1,189	1,042
압수량(kg)	195	37	36	18	21	22	93	213	44	84	22

※ 압수량은 소수점 이하 자리를 반올림 처리

- 대마사범은 그 동안 증가와 감소세를 반복하다가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가 2007년도부터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바, 이는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증가 및 외국 조기유학 내국인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대마초 밀반입 추이
  - 1995년도 이전의 대마초 밀반입은 대부분의 밀수입자 자신들이 흡연할 목적으로 10~20g 단위의 소량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주종을 이룸
  - 그러나 1996년도부터 밀반입 규모가 점차 대형화 되면서 영리목적 매매로 뚜렷한 전환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 주요 사례로는 2003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의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대마초 7kg 밀반입, 역시 나이지리아인의 아이스박스를 이용한 대마 8kg 밀반입, 2004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의 대마 3.5kg 밀반입, 2006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대마 5kg 밀반입, 2009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의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백인 여성을 이용한 대마 4.3kg 밀수입,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 여성의 대마 6kg 밀수입한 사례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2002년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인 등이 6회에 걸쳐 아프리카산 대마초 137kg을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다가 잇달아 적발됨
  - 2009년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종전의 백인 남성이 아닌 백인 및 흑인 여성을 운반책으로 이용한 대규모 밀수사범이 적발 된 적은 있으나 2005년도 이후에는 위와 같은 대규모 밀거래 현상보다는 대체로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소규모 소비목적의 대마 밀수사범이 적발되고 있는데, 주로 주한미군, 외국인 원어민 강사 등에 의해 밀수 및 흡연이 폭넓게 퍼져가고 있는 실정임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2-15] 대마사범 추세

## ● 2007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 키○○○○○ 사건(2007. 4. 대전지검)

2007. 4. 16. 대마 2.9g을 호주발 국제우편물로 밀반입하고, 같은 날 피의자의 집에서 흡연기구인 속칭 '워터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대마 중 0.04g을 흡연

## - 우○○ 사건(2007. 4. 의정부지검)

2007. 4.경 미국 시민권자인 친구 사건의 장○○가 대마 약 11.2g을 랩으로 포장한 후 청바지에 은닉한 채 국제우편물로 송부하여 밀반입하고 흡연

## - 설○○ 사건(2007. 5. 포항지청)

2007. 2. 5.경 박○○ 등과 공모하여 태국 방콕에서 대마초 200g을 800달러에 구입한 후 비닐랩에 넣고 압축하여 각자 팬티 속에 은닉한 채 같은 달 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여 판매, 흡연

## - 알○ 미○○ 사건(2007. 5. 대전지검)

2007. 5.경 캐나다에서 발송한 대마 약 1.65g(대마 담배 5개비)을 은닉한 국제우편물로 전달받아 밀반입

## 제4절 대마

- 와○○○○○○○○○○○○○○ 사건(2007. 6. 안산지청)  
2007. 6.경 스리랑카에서 발송된 우편물 속에 대마수지 8.1g을 은닉하여 밀반입
- 한국형 대마 강정 사건(2007. 7. 의정부지검)  
2007. 6. 초순 피의자 던○○○○은 주거지에서 드래곤맘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대마 광고를 보고, 그 무렵 대마자금 60만원을 위 드래곤맘 웹사이트 관리자가 지정하여 준 캐나다 밴쿠버시 이하 불상지로 송금하고, 위 드래곤맘 관리자는 대마강정 약 784g, 대마강정 892.4g 합계 1,676.4g 및 신종 대마 엑기스(일명 버더<sup>20)</sup>) 약 5g을 국제우편물로 송부하여 밀반입
- 임○○ 사건(2007. 7. 홍성지청)  
2007. 6. 27. 이○○과 공모하여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는 랜○에게 부탁하여 사진액자 속에 대마 27g을 은닉한 후 항공우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콜○○○○○○ 사건(2007. 7. 대전지검)  
2007. 6.경 미국에서 발송한 대마 약 2.4g(대마 담배 4개비)을 은닉한 우편물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밀반입
- 니○○ 사건(2007. 9. 청주지검)  
2007. 9. 3. 스리랑카로부터 대마 약 6.9g을 국제소포로 밀반입
- 니○○○○○○ 사건(2007. 9. 광주지검)  
2007. 8.경 미국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비닐에 싸여있는 해쉬쉬 20.65g을 땅콩버터가 든 유리병 속에 넣은 다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여 밀반입
- 스○○○○ 사건(2007. 9. 울산지검)  
2007. 8. 23.경 해쉬쉬 1.2g을 주머니에 은닉하여 프랑스에서 인천공항을 통하여 밀반입하고, 같은 해 9. 7.경 프랑스 친구에게 부탁하여 해쉬쉬 10.4g을 국제우편으로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밀반입

20) Budder는 해쉬쉬보다 수십 배 효력이 강력한 대마 엑기스 추출액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 전○○ 사건(2007. 9. 서울중앙지검)
 

2007. 10. 경 공모자인 인도 마나리시의 성명불상자가 해쉬쉬 약 222g을 인도유물 사진첩의 겹표지 안쪽에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하여 밀반입
- 프○○○○ 사건(2007. 10. 수원지검)
 

2007. 10. 1. 경 슬로베니아에서 대마 3.2g을 국제소포로 밀반입
- 2008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루○○○○○○ 사건(2008. 1. 수원지검 평택지청)
 

2007. 12. 29. 미국 조지아 주에서 프○○○○○이 마약류인 대마 약 4.6g을 헤어그리스 안에 숨긴 후, 머리빗, 의류와 함께 소포로 포장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수령하여 밀반입
  - 시○○○○○○ 사건(2008. 1. 인천지검)
 

2008. 1. 17. 태국 방콕에서 대마 농축액인 해쉬쉬<sup>21)</sup> 약 300g과 엑스터시 약 10g을 약 100개로 나누어 비닐랩으로 감아 물과 함께 마신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라○○○○○○○○ 사건(2008. 3. 부산지검)
 

2008. 3. 8. 중국 광주에서 해쉬쉬 약 18g을 사탕봉지 안에 은닉하여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로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레○○○ 사건(2008. 3. 춘천지검 속초지청)
 

2008. 3. 8. 러시아에 있는 자루비노항에서 대마수지(일명 해쉬쉬오일<sup>22)</sup>) 약 86.65g 상당이 비닐로 싸여 은닉되어 있던 질레트 면도 크림통 1개를 소지한 채 위 자루비노항과 속초항을 왕래하는 동춘호에 탑승하여 속초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입국하여 밀반입
  - 에○○○○○○○○ 사건(2008. 5. 춘천지검 속초지청)

21) Hashish는 대마초로부터 채취된 대마수지를 건조시키고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마약류로서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8~10배 강함

22) Hashish O는 해쉬쉬를 반복 증류하여 추출되는 것으로 그 효능이 해쉬쉬 보다 2~3배 정도 강함

## 제4절 대마

2008. 4. 30. 캐나다 거주 형에게 대마를 한국으로 보내도록 부탁하여 동인이 팬케이크 상자 안에 대마 약 27g을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같은 해 5. 7. 수령하여 밀반입

- 드 ○○○ ○○○ ○○ 사건(2008. 5. 부산지검)

2008. 4. 24. 미국 거주 친구에게 대마를 한국으로 보내도록 부탁하여 동인이 땅콩 버터병 속에 대마 약 24.5g,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4정을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같은 해 5. 21. 수령하여 밀반입

- 리○○ ○○ ○○○ 등 사건(2008. 5. 인천지검)

피의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인 앤○와 공모, 리○○ ○○ ○○○가 대마 14kg을 가방에 넣은 채 2008. 5. 26.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게 하여 밀반입

- 제○○ ○○ ○○○ 사건(2008. 6. 의정부지검)

피의자는 주한미군 병사로 미국 거주 민간인 테○ ○○○로부터 2007. 12. 20. 크리스마스 카드 속에 대마 4.6g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밀반입

- 테○○○ ○○○○ 사건(2008. 7. 의정부지검)

피의자는 주한미군 초청 계약근무자로 미국 거주 제○○○로부터 2008. 4. 28. 땅콩버터 병 속에 대마 19.8g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밀반입

- 보○○ ○○ ○○ 사건(2008. 7. 제주지검)

2008. 7. 3. 미국 거주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초를 한국으로 보내도록 부탁하여 동인이 약 3l 가량의 카레분말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속에 비닐 팩으로 포장한 대마초 약 114.04g을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같은 해 7. 14. 수령하여 밀반입

- 리 ○○○ 사건(2008. 7. 수원지검)

피의자는 캐나다 거주 루○○ ○○로부터 2008. 7. 8. 대마 3.7g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밀반입

- 개○ ○○○ 사건(2008. 8. 제주지검)

피의자는 캐나다 거주 조○ ○○로부터 2008. 8. 5. 땅콩버터 통 속에 대마초 25.93g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밀반입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 비○ ○○○○ ○○○ 사건(2008. 9. 부산지검)
 

피의자는 캐나다 거주 사○ ○○로부터 2008. 9. 2. 고체폴 빈통에 대마 2.23g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밀반입
- 제○○ ○ 사건(2008. 11. 광주지검 순천지청)
 

피의자는 미국 거주 샐○○ ○○에 대마초를 한국으로 보내도록 부탁하여 동인이 땅콩버터 속에 대마 38.2g을 은닉하여 국제특송 화물편으로 발송한 것을 2008. 10. 하순경 수령하여 밀반입
- 2009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한○ 사건(2009. 1. 인천지검)
 

2009. 1. 16. 네덜란드 암스페르담 소재 스키폴공항에서 대마초 948g 및 대마수지 12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 1개를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 맥 ○ ○○○ 사건(2009. 2. 서울중앙지검)
 

2009. 1. 19. 미국 텍사스에서 국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땅콩버터에 위장된 대마 9.25g 밀수입
  - 폐○○○ ○○ ○ 등 사건(2009. 3. 인천지검)
 

피의자는 리비아에 있는 동생 칼○과 공모하여 리비아 소재 벵가지공항에서 내막을 모르는 리비아인 사○○에게 대마수지 24.1g을 은닉한 홍차봉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주고 '음식물이니 대한민국에 있는 피의자에게 전달해 달라' 고 하여 위 사○○는 리비아 항공기에 탑승하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공항에서 환승하여 2009. 3. 2.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여 밀수입
  - 사○○ ○○○ 사건(2009. 3. 인천지검)
 

2009. 3. 24.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대마초 10.85g을 3뭉치로 나누어 각각 비닐로 싸고 팬티 안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밀수입
  - 니○○○ ○○○○ ○○ ○ ○○ 사건(2009. 5. 인천지검)

## 제4절 대마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자○(나이지리아 흑인 남성)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마초를 밀반입해 주면 수고비로 미화 3,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비닐 팩으로 포장된 대마초가 각 5,110.5g, 5,060.5g이 은닉된 나무조각품 2개를 건네 받은 후 항공기에 탑승하여 화물로 기탁하고, 카타르 도하에서 환승하여 일본 오사카 공항을 경유하여 2009. 5. 2.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여 밀수입

- 최○○ 대마쿠키<sup>23)</sup> 밀수 사건(2009. 6. 창원지검)

미국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미국인 존 ○ ○○와 메시지 대화중 대마쿠키를 보내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존 ○ ○○가 국제소포물로 포장하여 송부한 대마쿠키 60개(약 1,497g)를 2009. 6. 16. 국제특급 우편으로 수령하여 밀수입

- 오○○ ○○○ ○○○ 등 사건(2009. 7. 서울중앙지검)

피의자들은 나이지리아에 있는 공범 일명 오○의 지시를 받아, 위 오○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성명불상 백인 여자를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대마초 약 4.3kg를 보낸 것을 2009. 7. 7.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령하여 밀수입

- 고○○ ○○○○ ○○○ 사건(2009. 7. 인천지검)

피의자(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 여성)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초 약 6kg을 은닉한 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출발하여 카타르에서 환승하고, 일본을 경유하여 2009. 7. 9.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밀수입

- 김○○ 사건(2009. 8. 서울북부지검)

피의자는 미국 내 대마판매조직인 일명 GDS 소속 성명불상자에게 미화 295달러를 송금하고, GDS는 2009. 7. 8. 미국발 인천공항행 비행기 국제특송 화물을 이용하여 대마 약 6g을 특송화물용 봉투 안에 넣어 우송하여 이를 밀수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화 393달러를 송금하고, 2009. 8. 3. 대마 약 15.1g을 수령하여 밀수입

- 메○ ○○○ ○○○○ 대마쿠키 밀수 사건(2009. 11. 인천지검)

미국인이며 영어학원 강사인 피의자는 미국 메사츄세츠에서 메○ ○○으로부터 대마가

23) weed cookie: 대마성분인 칸나비노이드가 함유된 대마가루와 밀가루를 반죽하여 쿠키로 만든 것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함유된 대마쿠키 802g을 건네받아 플라스틱 용기에 은닉한 다음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산 소재 피의자 근무지로 발송하여 위 대마쿠키가 2009. 10. 26.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밀수입

- 로○○○○○○ 사건(2009. 11. 인천지검)

2009. 11. 24. 미국 시카고에서 여자 친구인 코○○○○가 대마초 44g을 땅콩버터 용기 안에 은닉한 뒤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수령하여 밀수입

● 2010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씨○○○○ 대마강정 밀수 사건(2010. 1. 인천지검)

캐나다인이며 중학교 영어강사인 피의자는 2010. 1.경 캐나다의 모○○로 하여금 대마강정 147.9g을 은닉한 화장품 상자를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시○○○○○○ 대마쿠키 밀수 사건(2010. 2. 인천지검)

미국인이며 중학교 영어강사인 피의자는 2010. 2.경 미국의 ㄷ○○○○로 하여금 대마쿠키 171.5g을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비○○○○ 대마쿠키 밀수 사건(2010. 2. 인천지검)

미국인이며 영어학원 강사인 피의자는 2010. 1.경 미국의 ㅋ○○로 하여금 대마쿠키 200.83g을 신문지 등과 함께 넣어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리○○○○○○ 밀수 사건(2010. 5. 대구지검 서부지청)

2010. 4.경 피의자(체코인)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체코에 있는 표○○○○와 채팅으로 대마초를 구하여 보내줄 것을 의뢰하고, 대마초 약 9.9g을 국제통상 우편물로 발송하게 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시○○○○ 사건(2010. 5. 제주지검)

캐나다인인 피의자는 2010. 4.경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마초 약 10.87g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제4절 대마

- 르 ○○○○ ○○사건(2010. 6. 제주지검)
 

미국인이며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인 피의자는 2010. 5.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마종자 55알을 투명 캡슐 4개에 담아 포장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스○ ○○○ ○○○○ 사건(2010. 10. 인천지검)
 

미국인이며 영어학원 강사인 피의자는 미국에 있는 ㄷ○○ ○○과 공모하여 2010. 2.경 위 ㄷ○○ ○○가 미국 시카고에서 갈색 종이봉투 안에 대마कु키 171.5g을 넣어 은닉하고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2011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미국 국적 영어강사 밀수 사건(2011. 2. 부산지검)
 

피의자는 2011. 2.경 미국 시카고에서 국제통상우편 속에 대마초 약 3.58g을 은닉한 후 국내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
  - 미국 국적 영어강사 밀수 사건(2011. 6. 수원지검)
 

피의자는 2011. 5.경 미국에서 우편물 속에 대마초 약 2.43g을 은닉한 후 국내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
  - 캐나다 여성 밀수 사건(2011. 8. 인천지검)
 

피의자는 2011. 8.경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대마 약 92.5g을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성기에 집어넣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
  - 미(美)정부 계약근로자 밀수 사건(2011. 12. 서울서부지검)
 

피의자는 2011. 10.경 미국발 미군사우편 행낭에 대마초 약 50g을 은닉한 후 유나이티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
- 2012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미국 국적 유학생 밀수사건(2012. 1. 서울서부지검)

## 2012 마약류 범죄백서

피의자는 2012. 1.경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시에서 대마초 22.51g을 구입한 후 국제우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ㄷㅇㅇ 밀수사건(2012. 5. 포항지청)

피의자는 2012. 4.경 국제우편을 통해 캐나다로부터 대마초 14.08g을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멕시코 국적 서커스단원 밀수사건(2012. 5. 순천지청)

피의자는 2012. 5.경 항공기 화물에 대마초 17.73g을 은닉하여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싱가포르인 밀수사건(2012. 7. 창원지검)

피의자는 2012. 6.경 스리랑카에 있는 친구에게 요청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초 5g을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대마쿠키 밀수사건(2012. 8. 진주지청)

피의자는 2012. 8.경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마쿠키 853.09g을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미국인 영어교사 밀수사건(2012. 9. 부산동부지청)

피의자들은 2012. 9.경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마초 10.32g을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불법문신업자 밀수사건(2012. 10. 서울서부지검)

피의자는 2012. 10.경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마초 8.49g을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주한미군 밀수사건(2012. 11. 서울서부지검)

피의자는 2012. 9.경 미국에서 원두커피안에 대마초 944.57g을 은닉한 후, 미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여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미군사우편 이용 밀수사건(2012. 12. 수원지검)

피의자는 2012. 7.경과 10.경 미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마초 505.65g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